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3361호 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뉴스]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02

Economy

코스피 1952.07 (+3.83)
코스닥 658.08 (-6.00)
금리(국고채 3년) 1.75 (-0.01)
환율(원·달러) 1181.00 (-1.00) 〈10일〉

"지켜달라" 1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며 '항의의 의미'로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시험 존치 논란

같은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로스쿨 법무부 규탄대회'에서 참석한 로스쿨 재학생들이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지하라"

"롯데제과 경영 간섭 안한다"

| 단독 인터뷰 | 일본 롯데 관계자

의결권 신동빈 회장에 맡길듯
연구개발 등 협업 목적
지분매입 확대 해석 경계

형제간 분쟁엔 침묵 일관
우호지분 확보 수순 분석

일본 주식회사 롯데(이하 일본 롯데)가 롯데제과의 지분 매입은 협력관계를 공고히하기 위함이라며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메트로신문은 10일 일본 롯데 고위관계자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 참여보다 일본롯데와 롯데제과의 시너지가 이번 공개매수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일본 롯데는 지주사 롯데홀딩스와 별개의 회사로 일본 정상의 제과업체다. 올 3분기에만 1266억 엔(한화 약 1조2140억원)이 매출을 기록했다.

서면인터뷰를 통해 일본롯데측은 앞으로 양사가 제과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껌, 초콜릿부터 시작해 다양한 인기 제과를 개발해온 일본 롯데의 R&D(연구·개발) 기술이 롯데제과에 도입될 경우 그간 미투상품(인기 브랜드와 유사한 제품) 제작소라고 불려온 롯데제과의 이미지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일본 롯데의 롯데제과 공개매수(7.93%)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일본 롯데는 롯데제과의 주식 10.03%를 확보하게 된다. 최대주주인 롯데알미늄(15.29%)에 이은 2대주주가 된다.

국내 기업인 롯데제과의 경영에 일본 롯데의 목소리가 너무 커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일본 롯데는 롯데제과의 경영권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일본 롯데 관계자는 "종전과 같이 한국 롯데의 경영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지분확보 과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분 참여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지만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지분 싸움에서 신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국 롯데 계열사에 대한 추가 지분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전략적 부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재계는 일본 롯데의 롯데제과 주식매입을 신 회장의 우호 지분확보 수순이라고 보고 있이다.

신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8.78%로 신격호 총괄회장(6.83%)과 신 전 부회장(3.96%)의 총 지분 10.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 롯데가 매수 진행 중인 지분은 신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신 회장이 롯데제과에서 갖는 실질적인 의결권은 18.81%다. 여기에 롯데알미늄의 지분 15.29%까지 가세하면 신 회장은 전체 3분1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이미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 8월 주주총회를 통해 신 회장 위주의 한·일 롯데 경영을 확인했다. 롯데제과의 지분을 매수하는 일본 롯데의 대표이사는 신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쓰쿠다 다카유키다.

재계관계자는 "일본롯데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보다 신동빈 회장에게 맡긴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갤로퍼에서 제네시스까지… MK의 도전 반세기

결함 땐 "처음부터"… 美 리콜 굴욕 10년 만에 '명품'

② 현대차 성장 '완벽주의와 통찰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제 2세대 기업가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우직하고 저돌적인 '뚝심경영'의 대표적인 모델로 불리고 있는 정몽구 회장은 완벽한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완벽주의'와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는 '통찰력'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을 이끌고 있다. 정 회장은 상품경쟁력 강화, 현지화 전략,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통해 선대 회장이 타계한 지 1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를 세계 5위의 자동차 그룹으로 끌어올렸다. 자동차만으로도 재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정 회장의 추진력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MK '완벽주의'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주목

현대·기아차는 1990년대 후반만 해도 미국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형편없는 품질로 조롱을 받았다. 당시 정 회장은 '품질경영' 노력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이런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정 회장은 현대차 경영을 맡은 1999년 수출 현장 점검차 미국을 방문했다. 당시 현대차는 품질문제로 미국 소비자의 리콜요청이 쇄도했다. 충격에 빠진 정 회장은 귀국하자마자 글로벌 자동차 품질조사 기관 J.D파워에 품질 컨설팅을 받도록 지시하며 품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1999년 현대·기아차의 '품질경영'은 '그레이스 슬라이딩 도어 사건'의 영향이 컸다. 당시 정 회장은 당시 울산 공장을 갑자기 방문해 조립이 끝난 승합차 그레이스의 슬라이딩 도어를 20여 차례 힘껏 여닫고, 결국 문이 슬라이딩 레일에서 이탈하자 "처음부터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생산라인을 세웠고, 신차 출시도 품질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정 회장은 파격 마케팅을 통해 세계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에서 품질을 인정받게 된다. 바로 '10년 10만 마일 워런티(보증수리)'다. '2년 2만4000마일 워런티'가 일반적이던 시절이어서 현대차의 마케팅은 파격적이었다. 시행 초기 도요타·혼다 같은 일본 경쟁사들은 '미친 행동'이라며 현대차를 비웃었다. 그러나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일본차들도 현대차를 따라 품질보증 수위를 높이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2004년에는 '쏘나타'가 미국 J.D파워 품질조사에서 일본 도요타를 제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 경제전문지 '포춘'은 신년호에 '자동차업계 최고 강자'라는 커버스토리를 통해 현대차그룹을 조명했다. 포춘은 현대차가 차량의 품질로 승부하고 고급승용차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정 회장의 모습을 싣고 "1999년 아버지인 고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뒤 양적인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자동차 메이커로 변신시켰다"고 소개했다.

◆ MK '통찰력' 시장 트렌드 분석 적중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시장에 기술력을 입증하며 회사 브랜드를 끌어올린 정 회장은 발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 먹거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이 현대·기아차를 이끈 이후 최초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 한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디자인 강화에 나선 것이다.

〈5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투싼

1999년 수출 점검차 美 방문
'형편없는 품질' 조롱에 충격
출시일정 미루며 품질경영 올인

2004년 美 경제전문지 '포춘'
"고급승용차 선두 주자 도약"
쏘나타, 품질서 도요타 제쳐

아반떼

한줄 News

정치·사회·국제

▲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치권 정쟁 등이 한 데 뒤섞여 노동개혁 5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여야가 쟁점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들 법안이 임시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 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만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 **폴크스바겐**은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차량이 애초 추산한 80만대가 아니라 3만6000대라고 밝혔다.

산업

▲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무게 중심이 액정표시장치(LCD)에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아몰레드·AMOLED)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분기 매출과 출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3분기 중소형 AMOLED 시장 매출은 32억9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9% 증가했다.

▲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을 포함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을 선정하고 2020년까지 42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금융·부동산

▲ **모바일 뱅킹**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가입 신청, 공인인증서 만들기 등 거래 화면에 동영상을 제공해 고령층 고객이 쉽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연초부터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1%대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과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몰려들었다.

유통

▲ 일본의 주식회사 **롯데**가 롯데제과의 지분 매입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메트로신문에 전했다. 일본롯데는 롯데제과와 협업을 통한 시너지에 집중할 계획이며 추가 지분 확보에 대한 부분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코오롱, 삼성물산, LF, 블랙야크, 네파 등 8개 아웃도어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고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당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29일부터 적용… 서울~부산 1300원 ↑
국토부, 연간 1640억원 재원 확보 기대

오는 29일부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통행료를 지금보다 1300원 많은 2만100원을 내야 한다. 민자(民資)로 건설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3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내놨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4.7%, 민자고속도로는 3.4% 오른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경부선 3개 구간, 영동선 1개 구간, 호남선 2개 구간, 남해선 1개 구간이 일제히 오른다. 다만, 구간 길이가 5km 정도인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과 경인선 등의 단거리 구간은 통행료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164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재원의 80% 정도는 교량과 터널 같은 구조물을 점검하고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 보강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IC를 개선하는 사업에도 400억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전체 10개 노선 가운데 5개 노선의 통행료를 3.4% 인상한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韓 소득대비 실질 조세부담 21.5%, OECD 30위

서민들 "세 부담 낮아도 쓸 돈이 없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1662만원… 1년새 3.3%↑그쳐

일회성 채무재조정 보다는 지속적인 창출능력 높여야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 조세부담률(tax wedge)'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0위로 낮다. 하지만 개인은 쓸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국민의 주머니(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사정은 크게 늘지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는 가계 소비여력을 더욱 위축시키는 형국이다.

◆실질 조세부담률 21.5%…OECD 평균보다 낮아

10일 OECD에 따르면 실질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1.5% (1인 가구 기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0번째로 낮았다.

실질 조세부담률은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기업 부담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 조세부담률이 낮을수록 노동자들의 세부담도 낮다는 의미다.

2010년에는 31위였다. 2010년 실질 조세부담률 20.1% 보다 1.3%포인트가 늘었다. 서민들의 세부담이 소폭 늘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의 실질 조세부담률은 OECD 34개국 전체 평균 36.0%의 59.72%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실질 조세부담률이 적은 나라는 이스라엘(20.5%), 멕시코(19.5%), 뉴질랜드(17.2%), 칠레(7.0%) 등 네 나라다.

실질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55.6%)로 우리나라의 2.76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조세격차 현황〉

단위:%

순위	국가	2014년	국가	2010년
1	벨기에	55.6	오스트레일리아	26.8
2	오스트리아	49.4	오스트리아	48.2
3	독일	49.3	벨기에	55.9
4	헝가리	49.0	캐나다	30.4
5	프랑스	48.4	칠레	7.0
6	이탈리아	48.2	체코	42.1
7	필란드	43.9	덴마크	38.3
8	체코	42.6	에스토니아	40.1
9	스웨덴	42.5	필란드	42.3
10	슬로베니아	42.5	프랑스	49.9
11	포르투칼	41.2	독일	49.1
12	슬로바키아	41.2	그리스	40.1
13	스페인	40.7	헝가리	46.6
14	그리스	40.4	아이스란드	33.4
15	에스토니아	40.0	아일랜드	25.8
16	터키	38.2	이스라엘	20.7
17	덴마크	38.1	이탈리	47.2
18	네덜란드	37.7	일본	30.2
19	룩셈부르크	37.6	한국	20.1
20	노르웨이	37.0	룩셈부르크	34.3
21	폴란드	35.6	멕시코	15.5
22	아이스란드	33.5	네덜란드	38.1
23	일본	31.9	뉴질랜드	17.0
24	미국	31.5	노르웨이	37.3
25	캐나다	31.5	폴란드	34.2
26	영국	31.1	포르투칼	37.1
27	아일랜드	28.2	슬로바키아	37.9
28	오스트레일리아	27.7	슬로베니아	42.5
29	스위스	22.2	스페인	39.7
30	한국	21.5	스웨덴	42.8
31	이스라엘	20.5	스위스	22.1
32	멕시코	19.5	터키	37.9
33	뉴질랜드	17.2	영국	32.6
34	칠레	7.0	미국	30.5
	OECD	36.0	OECD	35.1

자료:OECD

독일(49.3%), 헝가리(49.0%), 프랑스(48.4%), 이탈리아(48.2%), 핀란드(43.9%), 체코(42.6%), 스웨덴(42.5%), 슬로베니아(41.5%), 포르투칼(41.2%), 슬로바키아(41.2%), 스페인(40.7%), 그리스(40.4%), 에스토니아(40.0%) 등도 40%를 넘어섰다.

◆쓰고 싶어도 여윳 돈 없어

세 부담이 낮아도 서민들은 쓸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PGDI는 1만5786 달러로 전년(1만4704 달러)보다 7.4% 오른 1081 달러 늘었다. 이 마저도 원·달러 환율 연평균 3.8% 떨어진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해 1인당 PGDI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662만6000원으로 2013년(1610만2000원)보다 3.3% 증가하는데 그친다. 1인당국민총소득(GNI)은 실제 국민의 소득과 괴리가 있어 PGDI가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반면 가계와 기업·정부의 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GNI는 2만8180만 달러로 전년(2만6179 달러)보다 7.6% 늘어났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개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55.4%로 평균치(62.6%)에 한참 못 미쳤다. 21개국 중 16위인데, 정부의 재분배 비중이 큰 복지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이 18~21위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17위 에스토니아와 함께 꼴찌 수준이다.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다 보니 내수 침체는 만성화하고, 가계는 저축 대신 빚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4.2%였으며, 2·4분기 말 현재 166.9%로 추산된다. 한 해 세금 등을 내고 남은 소득이 1000만원인 가구가 1669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2%)보다도 높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다수 국민의 생활수준과는 동떨어져 있는 수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이 번 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만큼 임금과 배당을 늘려야 가계 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고 이에 따라 투자도 확대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텐데 이런 고리가 끊어진 것. 전문가들은 부(富)가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지도록 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소득 증가율보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반대로 가구소득 증가 율보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높다"면서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가계부채 대책은 일회성 부채 탕감이나 채무재조정이라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 계층의 지속적인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차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

"고용불안에 만혼·저출산"… 노동개혁 거듭 강조

젊은 부부들 일·가정 양립 어려워
선진국 수준 유아휴직제 도입에도
제대로 못쓰는 현실 과감히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만혼·출산률 저하…기성세대가 힘 합쳐야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전보다 초혼 연령이 약 2살 상승했고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20% 포인트나 낮아지고 있는데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 젊은이들을 위해 기성세대와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부디 국민 여러분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일자리 문제로 보고, 노동개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는 지금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을 거듭 강조했다.

◆"여성·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구조 만들 것"

여성의 일자리 보전과 노년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인식은 여전히 남성 외벌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해선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 인구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상하이모터쇼(오토상하이)2015'에서 삼성SDI 직원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들고 있는 모습(왼쪽)과 지난 5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열린 'EVS'서 LG전자가 선보인 전기자동용 경량 플랫폼. /삼성SDI·LG전자

SAMSUNG '전자 라이벌' 이번엔 스마트카 격돌 LG전자

국내 전자업계 전통의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동차 전장(戰場)사업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자동차 전장이란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전자 부품 및 부품들이 결합한 장치를 말한다. 텔레매틱스, 차량용 카메라 모듈, 차량용 무선통신모듈, LED, 전기차용 배터리 제어시스템(BMS)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전기로 굴러가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카 시대가 열리면서 전장부품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부품의 70%가 전장부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0일 미국 컨설팅회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올해 342조원 규모인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 규모가 오는 2020년에는 434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삼성, 반도체에 계열사 기술까지 시너지

삼성전자는 이러한 시장 추세에 맞춰 올해 조직개편에서 전사조직에 전장사업팀을 신설했다. 전장사업팀은 DS(부품)부문 대표인 권오현 부회장 직속으로 가동된다. 권 부회장은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가 전장사업팀을 관장한다는 것은 신설된 전장사업과 삼성의 반도체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장부품 시장, 급속 성장할 것
경쟁 속 전략적 역량 확보 노려

전장사업팀은 단기간 내 전장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에는 인포테인먼트(인포메이션+엔터테인먼트) 및 자율주행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열사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이 자동차 부품 사업에 처음 뛰어든 것은 아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들을 앞세워 전장부품 사업에 진출한 상황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를 독일 아우디 콘셉트카 'e-트론'의 계기판과 중앙정보디스플레이(CID)에 탑재해 선보인 바 있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부품사업에 발을 들여놨다.

삼성SDI는 현재 BMW, 폴크스바겐, 크라이슬러, 포드 등 글로벌 카메이커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내에 사업부 조직과 같은 구심점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직 신설로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 구글·벤츠·GM 등과 제휴로 사업확대

LG는 10여년 전부터 자동차 부품 사업의 성장성을 전망하고 자동차 전장사업분야에 공을 들여왔다.

LG전자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 독립사업본부로 VC(Vehicle Components) 사업부를 만들고 이우종 사장 체제로 제품 개발력과 영업력을 키워왔다. VC사업본부는 차량용 AVN(Audio Video Navigation) 기기 등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지능형 안전편의 장치로 불리는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 차량용 공조 시스템·전기차 배터리팩 등의 자동차 엔지니어링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영업이익면에서는 소폭 적자를 내고 있지만 LG전자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사 차원에서 집중하는 사업부문이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 승부를 걸고 있다. 최근 구글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협력사로 선정되고 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와도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GM의 차세대 전기차 쉐보레 볼트EV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구동모터, 인버터, 차내충전기, 전동컴프레서, 배터리팩 등 11종의 핵심부품을 공급 중이다.

LG 내의 다른 계열사들도 전장부품 사업을 확대 중이다. LG디스플레이는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에 정보 안내 디스플레이, 계기판 등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소재·부품분야 핵심 기술을 융복합하며 차량 전장부품 라인업을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다. 차량용 모터와 센서, 차량용 카메라모듈, 차량용 무선통신모듈, LED, 전기차용 배터리 제어시스템(BMS), 전력변환 모듈 등 보유하고 있는 제품군이 20여 종에 이른다.

LG화학은 최근 중국 난징시 신강 경제개발구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웠으며 지난해부터는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현재 연간 2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전략적인 조직체계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공조하며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전장사업팀 신설은 차량용 전장부품 시장 전 분야의 경쟁 심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LG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선거구 획정에 노동개혁 밀려

주객전도 된 임시국회

노동개혁 재차 충돌
첫날부터 개점 휴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치권 정쟁 등이 한데 뒤섞여 노동개혁 5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여야가 지난 2일 새벽 쟁점 6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관련,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해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결국 무산되면서 이들 법안이 무더기로 임시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여야가 부딪혀야할 사안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된 임시국회가 이날부터 30일간 열린다. 애초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노동 5법안 타결에 올인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개 쟁점 법안과 내년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등 시급한 사안들로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노동5법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임시국회 첫날부터 '네 탓' 공방

여야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도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노동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행태로 비난받아야 한다"며 "근로자의 3%에 불과한 민노총(민주노총)에 편승하지 말고 나머지 97%의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개혁 완수에 동참하는 길만이 국민을 위한 정도임을 명심해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역시 노동5법 중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과 관련, "기간제법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제법은 중장년 일자리 연장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해 기간제법은 "4년으로 (기간을) 늘려 희망고문을 더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파견법은 "파견은 치외법권 상태에 있어서, 적법 파견과 불법 파견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성행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가 네 탓 공방에 몰두하면서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법안심의를 위한 상임위는커녕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셈이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치권 정쟁 등이 한 데 뒤섞여 노동개혁 5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총선에 가려진 노동개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데다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 등으로 노동개혁은 갈 길을 잃었다. 지난 11월 16일 노동 5법이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온 이후 제대로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현재 노동개혁 타결을 발목 잡는 가장 큰 문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이 같은 교착 상태에 대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15일 이전에 (선거구획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다.

여야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개인의 공천·당내 계파 간 지분 확보 등 당리당략에 매몰된 사이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은 공중분해 위기다.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법안 등은 물론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어렵게 대타협을 이룬 노동 법안은 해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함에도 불구, 19대 국회가 비생산성을 드러내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특수성과 의원들의 이기주의·기득권이 맞물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기국회 폐회일 마지막 본회의에는 정족수(의원 정수의 과반)가 모자라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이 국회 활동은 저버리고 지역구에 몰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개인 먼저" vs "당 먼저"

여야가 각각 공천룰과 당 내분을 둘러싼 내홍을 겪는 것도 노동법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와 투표 실시 기준·방식을 두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간 갈등으로 분열과 봉합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결국 당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면서 노동법 타결 의지와 협상 동력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그사이 노동계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찰 자진 출두를 기점으로 노동개혁 강력 저지를 천명, 오는 16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이 노동 개혁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낙선 운동 불사 방침을 세우면서 정치권이 발을 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총선정국과 여야 정쟁에 휘말린 노동개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국유기업 합치고… 수입품 관세 줄이고… 주 4.5일 근무 추진…

수출·제조서 내수·서비스로… 中, 경제체질 개선 안간힘

숫자 대신 대형화로 효율 강화
주당 휴일 늘려 소비확대 기대
"경쟁력 되레 추락" 잇단 경고

지난 8일 중국 상하이 양산항 컨테이너터미널의 모습. 중국은 지난 11월 사상 최장 13개월째 수입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중국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국유기업의 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있다. 동시에 내수경제를 키우기 위해 '4.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거 투자와 수출 위주의 초고속성장에 길들여진 경제체질을 서비스 중심의 소비경제로 바꾸겠다는 노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을 외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경제체질 과정이 길어질수록 세계경제가 겪어야 할 진통도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경제는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줄이면서 극심한 원자재 가격 하락 사태에 고통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국유기업 합병…세계 최대업체 출현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숫자는 100여 개 가량이다. 10년 전 200여 개에 육박하던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국 정부는 다시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유기업 통합을 통해 국내 경쟁을 없애고 대외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이미 시동은 걸렸다. 올해 초 철도차량 분야에서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난처(CSR)와 중국 베이처(CNR)가 합병해 중국 중처(CRRC)가 탄생했다. 세계 최대 철도차량업체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어 7월에는 중국전력투자공사와 중국원자력기술공사가 합병해 국립전력투자공사로 거듭났다. 이달 8일에는 광산업체 우쾅그룹과 금속업체 중예그룹이 합병을 선언했다. 역시 세계 최대 광산업체의 탄생이다.

중국 해운업의 양대축인 코스코와 차이나 쉬핑그룹도 합병을 앞두고 있다. 세계 4위 해운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또 중국 최대 에너지기업인 중국 석유화공집단공사와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도 합병을 논의하고 있고,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중국이통과 중국옌통도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주 4.5일 근무제 추진…소비 확대 기대

지난 8일 중국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넘어 주4.5일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주 40시간 근무만 한다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놀라는 이야기다. 휴일을 2.5일로 늘리면 직장인들이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쓸 것을 기대하며 내놓은 정책이다.

컨설팅업체인 펑비즈니스인텔리전스센터(FBIC)와 차이나럭셔리어드바이저스(CLA)에 따르면 2011년 2500억 달러(약 245조 원)를 넘어선 중국인 여행자들의 국내 소비규모는 2014년 5000억 달러(약 590조 원) 가까이 올라갔다. 2014년 150억 달러(약 180조 원)에 그친 해외여행객들의 중국내 소비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중국 정부도 이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허베이성, 장시성,충칭시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허베이와 장시의 인구를 합치면 1억1500만 명에 이른다. 충칭시 인구는 3000만 명 가까이 된다.

◆두자녀 정책 맞추어 반 년만에 관세 인하

중국 정부는 내수 촉진을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수출입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카드도 내밀었다. 경제전문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지난 6월 인하보다 광범위하다. 지난 6월에는 양복, 모피 등 일부 의류, 스킨케어 화장품, 기저귀 등의 수입관세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렸다. 이번에는 분야별 수입관세 범위를 확대하고 새롭게 가방류, 분유 등 품목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모직, 면직류 의류의 수입관세가 모두 기존의 16%에서 8%로 내려간다. 운동화, 부츠 외 대부분 신발에도 기존 24%의 절반 수준인 12% 수입관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 여행가방, 핸드백 등 가방류 수입관세도 기존의 20%에서 10%로 인하될 예정이다.

분유는 중국 내 수요가 큰 수입 분유 일부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기존의 20%에서 4분의 1 수준인 5%로 낮춘다. 영유아 의류와 가공식품의 관세를 기존의 15%에서 5%로 인하한다. 시로 시행되는 '두자녀 정책'에 맞추어 내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도다.

◆중국 밖에서 '체질전환' 실패 우려

그러나 외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영기업 개혁에 대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오히려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선 상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고 산재한 잉여 국영기업을 정리하는 데에도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익성이 없는 국영기업이라면 합병보다는 아예 폐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4.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말 이틀을 쉬기도 힘든 회사도 많은데 2.5일 휴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겠냐는 반론이다.

관세 인하 역시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품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관세 인하는 확정이 아닌 임시관세로 반쪽짜리 인하라는 지적도 있다.

◆불황형 흑자 심화…수입 13개월째 감소

외부의 우려대로 중국 정부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까. 아니면 원하는 목표인 신창타이(새로운 정상상태)로 순조롭게 이행하게 될까. 분명한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해관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하락했다. 수출은 2.2%, 수입은 14.4% 하락한 불황형 흑자였다. 특히 수입은 전년 대비 5.6% 감소해 사상 최장인 13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 정부가 서비스 중심의 소비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다보면 상품무역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체질전환 정책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부양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2선, 3선 도시 중심으로 주택 재고 소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미분양 면적이 연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방에서는 중국이 과거 일본과 같이 '부동산 버블 붕괴'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스모그 적색경보'로 베이징 가계지출 부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10일 스모그 적색경보를 해제했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언제든 스모그가 재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모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베이징의 가장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번 스모그 사태로 인한 베이징 가정의 지출 규모는 얼마나 될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 평범한 40대 가장의 경우 거의 2만 위안(36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소재 국영연구소에 다니는 우후이씨(43)는 이 돈을 실내 공기청정기와 가족의 마스크를 사는 데 지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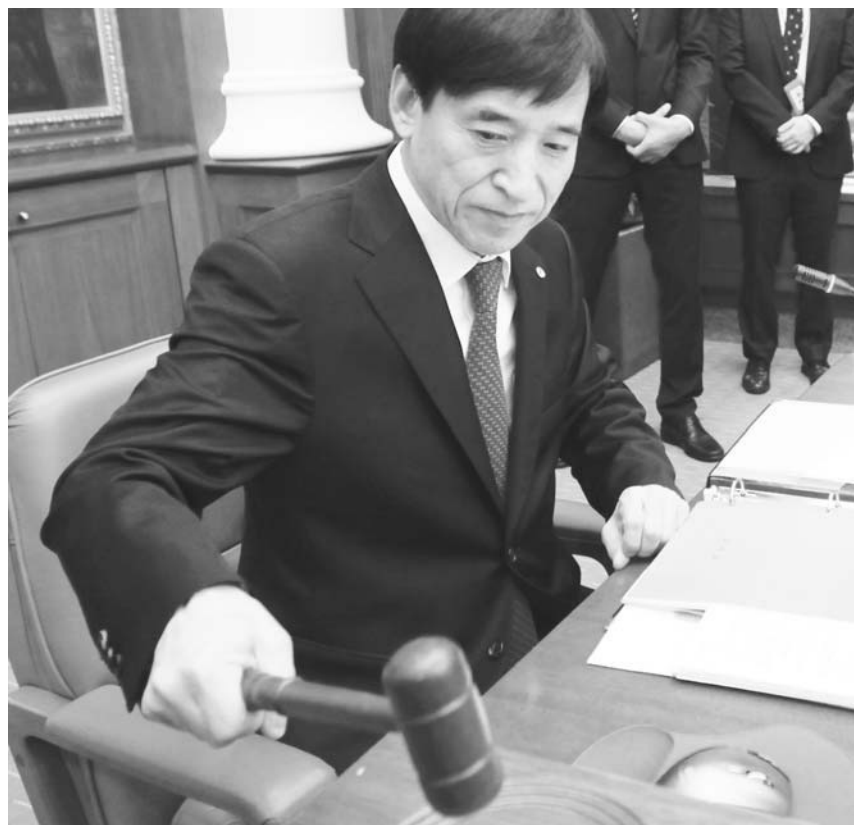
공기청정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씨는 지난해 1만 위안(약 180만 원)짜리 스위스제와 2000 위안(약 36만 원)짜리 일본제를 샀다. 기계 두 대를 가동하는 데 들어간 전기요금만 200 위안(약 3만6000 원)이었다. 하지만 기계 두 대를 24시간 풀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석탄 냄새가 풍겼다. 기계가 돌아가는 중에도 실내 공기가 뿌옇게 흐려질 정도로 이번 스모그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씨는 7000 위안(약 130만 원)을 들여 스웨덴제 공기청정기를 사야했다.

우씨는 또 50개의 일회용 마스크를 사는 데에 258 위안(약 4만7000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우씨는 외출했다가 오염물질에 염증이 났다. 마스크가 PM2.5(초미세먼지) 농도의 오염물질에는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우씨는 아들에게도 염증을 옮겼다. 두 사람은 약값으로 500 위안(약 9만 원)을 지출했다. 베이징에서 시판되는 마스크 거의 전부가 우씨가 산 제품처럼 초미세먼지에 효과가 없다. 하지만 콘돔 판매량을 넘어설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다. /송병형 기자

한은, 금리 6개월째 동결

유가하락·美금리인상 압박 속 일단 시간벌기

"美금리인상해도 여유 갖고 대응"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연 1.50%)했다. 6개월째 동결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 수준으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인하된 후 6개월째 연 1.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5~16일(현지시간)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재 연 0~0.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국내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한은은 국내외 경기여건을 주시하면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 금리인상은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보여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가 대응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할 것"이라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에서 미국은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은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됐다.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는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으며 고용률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 축소 및 서비스요금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0.9%에서 1.0%로 높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3%에서 2.4%로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은 상승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의 증가세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에 따른 최대 위험요인은 취약 신흥국의 위기 확산이다. 취약 신흥국의 금융경제 불안이 확대돼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며 "또 최근 유가가 예상을 넘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가 하락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둔화 등을 감안해 다음 달 경제 전망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야후, 포털 버리고 투자회사 변신

메이어 CEO, 주주 압력에 굴복
알리바바 지분 매각 결정 취소
'핵심사업' 인터넷 분야 분사

미국의 포털업체 야후가 본업인 포털 부문을 분사해 내보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9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월 7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국제 소비자전쇼(CES)에서 야후의 머리사 마리아 메이어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야후가 본업인 인터넷 포털을 포기하고 투자회사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했다.

9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야후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해 왔던 알리바바 지분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대신에 핵심사업인 인터넷 분야를 분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WSJ는 이를 두고 '역분사(reverse spin off)'라고 표현했다. 매각을 전제로 한 분사여서 인터넷 포털 사업을 접겠다는 발표나 다름없다.

역분사 이후 야후에는 시가총액 310억 달러(약 37조원)에 달하는 알리바바 지분 15%만 남게 된다. 사실상 투자회사로 변신하는 것이다. 알리바바 지분을 제외한 야후 자산은 새로 만들어질 회사로 이전된다. 새 회사 주식은 야후 주주에 배분된다. WSJ는 해당 자산 규모가 2억~4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야후 최고경영자(CEO)인 마리사 메이어는 지난 수개월간 핵심사업 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서 알리바바 지분 분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알리바바 지분을 처분해 구글과 페이스북에 잠식당한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부활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주주들의 이익도 지키겠다는 복안이었다. 메이어는 3년전 CEO로 전격 영입된 이후 야후 광고사업의 부활을 꾀했지만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주주들은 이 같은 메이어의 주장에 반발했다. 야후의 대주주인 행동주의 투자회사 스타보드밸류는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알리바바 지분 매각 계획을 접고 인터넷사업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투자자도 야후나 투자자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메이어는 결국 주주들의 압력에 굴복했다. 메이어는 CNBC에 나와 "현재 야후를 둘러싼 이야기들과 평가가 복잡한 상황이다. 알리바바와 야후 재팬, 세율, 과세 가능성, 현금, 핵심사업 등에 대해서 각각의 주주가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알리바바 지분의 분리를 통해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2012년 메이어가 CEO로 취임한 이후 처음 영입한 페이팔 공동 설립자 맥스 레브친은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메이어에 대한 퇴진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메이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성취에 매우 자랑스럽다.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퇴진설을 일축했다.

야후는 앞으로 분사할 인터넷사업에 대한 매각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사로 인해 매각이 더 쉬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야후의 인터넷 사업 매각설이 돌면서 미국 미디어, 통신기업과 사모펀드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최대의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은 야후 이사회가 매각 결정만 하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버라이즌은 야후 인터넷 사업을 인수해 자사 광고기술사업의 성장 촉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라이즌은 올 6월 인터넷 콘텐츠 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AOL)을 약 44억 달러(5조여 원)에 인수했다. AOL은 제3자 웹사이트에 광고를 파는 데 특화돼 있다. 야후는 방대한 사용자 기록과 이메일 주소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버라이즌의 무선통신기술이 접목되면 구글과 페이스북을 위협하는 공룡이 태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최대의 케이블TV업체인 컴캐스트, 통신사인 AT&T, 미디어 그룹인 인터액티브코프(IAC), 언론재벌인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프, 미국의 디즈니 외에 TPG 캐피털과 같은 사모펀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후재팬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 야후의 인터넷 사업이 여기저기로 찢겨질 가능성도 있다.

야후 인터넷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광고사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야후 방문객이 미국에서만 매달 2억 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 다음이다. 이런 사용자 수는 통신, 미디어 기업들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글로벌 디자인 인재 영입… 트렌드 주도

>> 1면에서 계속

정 회장은 BMW의 크리스 뱅글, 아우디의 월터 드 실바와 함께 유럽 3대 자동차 디자이너에 꼽히는 피터 슈라이어를 2006년 기아차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예감은 적중했다.

기아차는 2006년 피터 슈라이어의 영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아차는 제대로 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지 못했으나 피터 슈라이어는 이른바 '호랑이 코 그릴'을 통해 패밀리 룩을 탄생시켰다.

▲깔끔한 외관이 돋보이는 K3 ▲수입차를 연상케하는 K5 ▲강인한 외관이 인상적인 K7 등이다. 그의 부임 후 기아차는 '레드닷 디자인상'을 5년 안에 무려 10개의 차종에서 수상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벤틀리 전 수석 디자이너 출신의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현대디자인센터 수장(전무급)으로 영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하게 된다. 벨기에 출신인 동커볼케는 23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왔다. 최근에는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3회, '올해의 유럽 디자이너상' 15회 등을 수상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동커볼케는 내년 상반기 현대차에 합류해 제네시스와 현대차 디자인을 이끌게 된다.

/양성운 기자 ysw@

창조경제센터 성공하려면 컨트롤타워 필요

전문성 육성 프로그램 중요
대기업 등과 협력·조정 관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협력과 정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15일 대구에서 개소된 이후 지난 7월 22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갖춰졌다. 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정책을 구체화하는 시발점이자 추진 동력을 점화시키는 발화점이다.

중기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추진 동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이현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대표적인 곳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TP),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며 "이번에 새로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중 하나로 이들 기관은 지원분야와 주요 지원대상 업종 등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활발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잠재창업자로부터 창업희망자를 발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재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거도 필요한 업무"라고 역설했다.

창조경제를 위해 제한 없는 업종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익성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창의적 업종개발에 역점을 두고, 해외진출을 고려할 경우 신기술, 하이테크 업종만이 아닌 사업화가 가능한 적정· 중기술 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그 방법으로 "창업과 중소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협업과 조정 기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여러 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삼성그룹이 10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을 기탁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현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리본부장,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장인성 삼성사회봉사단 전무. /삼성그룹

삼성 "회사 허리띠 졸랐지만 이웃 온정은 그대로"

4년 연속 500억원 기탁

삼성그룹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은 서울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 허동수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삼성 측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재편과 비용절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성금은 4년 연속으로 500억원을 기탁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1999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급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탁금은 4200억원에 달한다.

삼성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100억 원씩,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억 원씩, 2011년은 300억원, 2012년부터 올해까지는 500억원을 기탁했다.

삼성은 또한 임직원들이 기부를 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를 통한 사회공헌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임직원 참여율도 2011년 74%에서 점점 늘어 올해는 88%를 넘어섰다.

그 결과 올해 조성 기금은 615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까지 조성된 누적 금액은 2395억원에 달한다.

'매칭 그랜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각 계열사 업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삼성전자 투모로우 솔루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삼성화재의 드림스쿨과 드림놀이터 등이 대표적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프리미엄 냉장고 200만원에 나왔다

삼성전자
이달 말까지 송년 이벤트
주요제품 최대 30% 할인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2015년형 냉장고 히트 모델을 대상으로 송년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 냉장고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양문형 냉장고 부문(지펠) 15년 연속 1위'와 '국가 브랜드 경쟁력지수(NBCI) 12년 연속 1위' 등을 차지하며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K-세일데이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프리미엄 냉장고를 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 '지펠 T9000' 인기 모델 5종과 '지펠 푸드쇼케이스' 최고급 모델 등 행사 적용 모델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달 말까지 전국에 있는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주요 백화점 매장에서 슈퍼

삼성전자 모델들이 10일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서본점에서 '2015년형 냉장고 히트 모델 대상 송년 할인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 등 2015년형 주요 냉장고 전시 제품 약 8000여대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정은미 기자

‘쇄신’ 내세운 김영섭… 실용주의 경영 천명

〈LG CNS 신임사장〉

“막중한 책임 무겁지만 실질적인 일에 집중을”

고향같은 LG CNS로 돌아와… 반가운 마음 커
느슨해진 마음 다잡고 긴장의 끈 다시 조일 때

김영섭 LG CNS 신임 사장(사진)이 실질적인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실용주의적 경영’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일 LG CNS에 따르면 김영섭 사장은 취임 후 임직원에게 사내 메일을 통해 “고향과 같은 LG CNS로 돌아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가운 마음이 크다”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도 무겁게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고 긴장의 끈을 다시 한 번 조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불필요한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실질적인 일에 더욱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사장이 ‘해현경장(解弦更張)’과 ‘사요무실(事要務實)’의 사자성어를 경영 키워드로 압축해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해현경장은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라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는 것’을, 사요무실은 ‘일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질에 힘쓰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경영의지는 지난달 27일 정기인사와 함께 발표한 조직 개편에서도 드러난다.

LG CNS는 사업규모와 현장 밀착 경영 강화를 위해 조직구조와 명칭을 기존의 ‘사업본부·사업부’ 체계에서 ‘사업부·사업부문’으로 변경했다. 또 일부 사업조직을 조정, 통합했다. 기존 금융·공공사업본부 산하 금융1, 2사업부는 ‘금융사업부문’으로 통합했으며, 국방사업부는 폐지하고, 일부 사업 기능은 공공사업부문으로 통합했다.

이는 급변하는 환경에 조직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자는 김 사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김 사장은 최근 각 사업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디테일(Detail)’과 ‘실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시에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핵심만,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를테면 100가지 보고할 내용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보고하라는 뜻이겠다.

또한 김 사장은 ‘경청’(傾聽)을 통해 내부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면서 조직의 컨센서스를 통해 경영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취임 후 본사 각 층을 다니며 임직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눴으며 사업부 첫 업무보고 시에도 주로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업부와 스텝 조직이 함께 모여서 힘이 응집될 수 있도록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사내 메일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집중한다면, LG CNS가 IT업계 일등기업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신임 김 사장은 1980년대 우수 인재의 산실이었던 LG상사(당시 럭키금성상사) 출신으로, LG구조조정본부와 LG CNS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다.

LG 내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LG CNS에서는 11년간 근무하면서 CFO를 비롯해 하이테크사업본부, 솔루션사업본부 등 주요 사업본부장을 역임해 재무와 IT사업에 모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모델이 청소가 불편했던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LG전자 다용도 흡입 키트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용도에 맞춰 쓰는 청소기 액세서리 선봬

LG전자, 다용도 흡입키트 출시

LG전자가 청소기 액세서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LG전자는 청소가 불편했던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흡입 키트를 10일 출시했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무선청소기인 ‘코드제로 싸이킹’을 어깨에 매고 사용할 수 있는 백팩 등으로 선보이고 액세서리 제품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용도에 따라 홈 케어 키트와 알러지 케어 키트 2종이다. 청소기를 구입하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조 흡입구에 비해 특정 사용환경에서 흡입 성능과 사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 케어 키트(모델명: PKHM01)는 ▲20㎝ 더 길면서, 구부러지는 ‘틈새 흡입구’ ▲다양한 각도로 조절 가능한 ‘상부 청소 흡입구’ ▲청소 솔을 딱딱하게 만든 ‘굳은 먼지 흡입구’ ▲‘매트리스 흡입구’ 등 총 4종으로 구성되며 가구와 벽 사이, 냉장고 위까지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다.

알러지 케어 키트(모델명: PKAL01)는 ▲머리카락, 털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회전 브러시 흡입구’ ▲강력한 펀치로 털어주는 ‘침구팍팍 흡입구’ ▲‘굳은 먼지 흡입구’ 등 3종으로 구성되며 침구, 소파, 카펫 등의 먼지나 반려동물의 털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다용도 흡입 키트는 올해 생산한 싸이킹 청소기 전 모델에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출하가 기준 10만원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대우조선 ‘천연가스 직분사식 LNG선’ 첫 건조

캐나다서 해상 시운전 완료
자체개발 관련 신기술 적용
연료 효율 30% 가량 높아

대우조선해양이 10일 세계최초 천연가스 직분사 추진 방식 LNG운반선에 LNG를 싣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건조한 세계 최초의 ‘천연가스 직분사 추진 방식 LNG운반선’이 출항 준비를 마쳤다.

대우조선해양은 캐나다 티케이사로부터 수주한 17만3400㎥(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이 대한해협에서 해상 시운전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 선박은 세계 최초로 천연가스 추진 엔진(ME-GI 엔진)이 탑재된 LNG운반선이다. 이 선박에는 ‘연료공급시스템’(FGSS)과 ‘재액화장치’(PRS)등 대우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천연가스 관련 신기술을 대거 적용해 2012년 12월 수주 당시부터 주목받았다. 기존 이중연료 전기추진 방식(DFDE) 엔진을 탑재한 LNG선보다 연료 효율이 30% 가량 높고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NOx), 황화합물(SOx) 등 오염물질 배출량도 30% 이상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선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시운전에는 전세계 LNG선 선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개념단계에 머물러 있던 천연가스 직분사 추진 LNG운반선의 우수성이 이번 실제 시운전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진행된 해상 시운전에는 연료인 고압 천연가스를 엔진에 공급하는 시스템 점검, 천연가스를 저장·운송하는 화물창 시험, LNG 재액화장치인 PRS의 성능 시험 등이 진행됐다. 약 보름 간 진행된 시운전을 통해 이 선박은 선주와 선급이 요구한 성능 기준을 완벽하게 달성했다. 이 선박이 투입되면 해운회사는 기존 선박에 비해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연 500만 달러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환경성과 경제성을 갖춘 선박이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쳐 향후 조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조선소장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등 규제가 강화되면 천연가스 추진 선박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대우조선해양이 관련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천연가스 추진 LNG운반선의 이름은 ‘크리올 스피릿(Creole Spirit)’으로 정해졌다. 크리올 스피릿 호는 내년 1월 선주 측에 인도돼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내 조선소가 수주한 47척의 대형LNG운반선(16만㎥ 이상) 중 35척을 수주하며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쌍용차, 자동차 할부금융 뛰어든다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설립
내달부터 본격 업무 시작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자사 전담 할부금융회사의 설립과 운영 등록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전담 할부금융회사인 에스와이오토캐피탈(대표이사 박진수)은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지난 8일 마쳤다. 3본부(경영관리 및 리스크관리, 영업관리본부), 5팀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 1월 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에스와이오토캐피탈은 쌍용자동차와 KB캐피탈이 51%대 49%의 비율로 합작 설립한 납입자본금 200억원 규모의 쌍용자동차 전담 할부금융회사로, 지난 9월 설립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쌍용자동차가 에스와이오토캐피의 등록을 마치고 자동차 할부금융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내 완성차업체와 금융사가 전담 할부금융사를 합작 설립한 것은 에스와이오토캐피탈이 최초다. 양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자동차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에스와이오토캐피탈을 통해 고객 맞춤형 자동차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구매 단계부터 할부, 유지관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생활 전반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양성운 기자

진에어
신입 남녀 객실승무원 채용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대표 마원)가 2016년 5월경부터 업무에 투입될 신입 남녀 객실승무원 30여명을 채용한다.

진에어는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채용 안내 사이트(jinair.careerr.co.kr)를 통해 신입 남녀 객실승무원의 상세 채용 계획을 공고하고 온라인 지원 서류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시 ▲최소 학력과 신장 제한은 없다.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영어 및 제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서류 심사와 1, 2차 면접, 신체 및 체력 검사를 만족한 약 30여명의 채용 인원은 객실 서비스 및 안전 훈련 등을 거쳐 오는 2016년 5월부터 현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JS대부2015서울금천-00029(대부업)
현금없이 사는 차
(당일출고)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차 + 취.등록세 + 보험료 모두 현금없이 당일 출고!
그리고 추가로 여윳돈 1,000만원도 당일 같이 드려요~ (전국)
저신용자 OK! 무직자 OK! 당일출고 OK!
아시아캐피탈 1833-7475
월00%연34.9%이내(연체이자포함)추가비용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9층(가산동,뉴티캐슬)서울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02-2627-1312

작업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일터안전을 위한 첫 단추,
작업 전 안전점검 으로 채우세요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 약 2천명, 재해자 9만여 명

일터에서 매일 5명이 목숨을 잃고 250명이 다치는 셈입니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보호구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는 부착되어 있는지?
안전교육은 실시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 공정에 안전작업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이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스마트폰 타고 중소형 아몰레드 시장 폭증

스마트폰 판매증가 힘입어
1년 만에 매출 200% 상승
3분기에만 32억달러 팔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무게 중심이 액정표시장치(LCD)에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아몰레드·AMOLED)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분기 매출과 출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소형 AMOLED 시장 매출은 32억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9%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24.4% 늘었다.

중소형 AMOLED 분기 매출이 30억 달러 고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투명 아몰레드 패널 /삼성디스플레이

출하량 역시 사상 처음으로 7000만개를 넘어선 7900만개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분기 대비로도 35%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AMOLED의 비중은 매출 기준 38.8%, 출하량 기준 18%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중소형 AMOLED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AMOLED 탑재 스마트폰 증가 때문이다.

'AMOLED 패널'의 개척자인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노트 등 하이엔드 플래그십(최고급) 제품 외에 중저가 시장 공략을 위해 갤럭시 A, E, J, Z 시리즈에도 AMOLED를 속속 탑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AMOLED 신제품을 확대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 3위로 급부상한 화웨이를 비롯해 비보, 오포, 지오니 등 중국 주요 로컬업체들의 AMOLED 신제품 라인업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업체들이 주도해 온 플렉서블 AMOLED 스마트폰 시장에도 블랙베리 프리브, 모토로라 드로이드 터보2 등 신제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 확대를 이끌고 있다.

중소형 AMOLED 시장 성장은 곧 삼성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삼성디스플레이 '1강 독주' 체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3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소형 AMOLED 패널 매출은 31억5300만달러로 시장 점유율은 무려 95.8%에 달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독보적인 AMOLED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38.5%의 점유율로 1위를 달렸다.

한편 3분기 전체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 매출은 112억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전분기 대비 9.9% 증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28.9%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고수한 가운데 재팬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각각 17%와 13.8%의 점유율로 톱3를 형성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지문으로 푼다

KISA
내년 1월부터 본인 인증방식 변경
KG모빌리언스 통해 시범 서비스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필요 없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지문 인식으로 대체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방식을 비밀번호 입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문 인식으로 바꾼다고 10일 밝혔다.

KISA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문 인식 센서가 있는 스마트폰에 지문을 저장하고 나서 PC와 스마트폰을 연계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과 달리 액티브X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KISA는 내년 1월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부터 비밀번호 없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업체 KG모빌리언스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통, 결제, 금융회사 등에도 관련 기술을 전한다.

공인인증서는 올해 7월 기준 3341만명(65%)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고 영문, 숫자, 특수기호가 섞인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등 심하게 번거롭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지난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문인식 본인인증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공인인증서 지문 인식은 관련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폰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KISA 관계자는 "대형 제조사들이 지문 인식 센서를 탑재한 단말기를 출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중저가 제품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라며 "공인인증서 사용자에게는 지문 인식 방식이 활용도가 높고 반응도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정부, 스마트제조 연구개발 로드맵 발표

"3D 프린팅 등 8대 기술에 4200억 투자"

5년 내 제조업 4대 강국 도약
맞춤형 車 생산 기술 등 연구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포함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을 선정하고 2020년까지 42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사양이 적용된 맞춤형 자동차 생산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난치병 신약 개발 등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스마트제조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인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을 활용해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의 혁신을 불러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은 스마트센서, 가상물리시스템(CPS), 3차원(3D) 프린팅, 에너지 절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홀로그램 등을 가리킨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자동차 분야에서는 맞춤형 자동차 생산기술을 제조기술의 미래상으로 전망했다. 지금처럼 대량생산 방식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조된 차가 아니라 수요자 개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에 특화된 맞춤형 차를 만들 것이란 얘기다.

화학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사고 '제로'(0) 시대가 열리고, 통신 분야에서는 IoT 시대가 개막하면서 산업보안이 중요해질 것으로 점쳐졌다.

기계 분야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본격화되고, 전자 분야에선 생산설비의 이상징후를 미리 포착해 고장이 나기 전 수리하는 스마트 예방정비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패션 분야에선 패스트패션, 중공업 분야에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공장)끼리 에너지를 공유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막는 기술, 전기 분야에선 전력 피크(정점) 스마트 관리가 제조업의 미래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로드맵은 이런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R&D 과제로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과 철강 물류 스마트화, 클라우드를 활용한 산업정보 보호기술과 전력 수요 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딥(deep) 러닝 로봇 기술이나 신약 후보물질 탐색 등을 제시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이런 기술개발을 통해 8대 기술의 경쟁력 수준을 17%포인트 높이고(선진국 대비 71%→88%), 생산성 향상, 에너지 비용 절감, 제품 개발기간 단축 등을 달성해 2020년 제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

기성복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시대 개막

'T전화' 업그레이드… 타사 가입자에 개방

SK텔레콤
편의·안전성 강화… 2.5버전 출시

SK텔레콤이 편의성과 안정성이 개선된 통화 플랫폼 'T전화' 2.5 버전을 10일 출시했다.

T전화 2.5 버전은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안드로이드 4.1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스팸번호에 더해 사기피해 번호도 제공되는 등 안정성이 강화됐다.

새로운 T전화에는 스팸전화 여부를 알려주는 안심통화, 화면을 보면서 통화하는 보이는 통화, 통화 중 사진·문서·위치·웹페이지 공유(T전화앱), 저장하지 않은 상호 전화번호도 확인 가능한 T114 등이 이용 가능하다. 단 그룹통화 등 일부 기능은 제외된다.

기능도 추가됐다. SKT은 이번 버전부터 사기 전화번호 정보 공유업체인 '더치트'와의 제휴를 통해 사기피해 번호를 제공한다. 해당 번호로 전화가 오면 '사기피해 의심번호'라는 메시지가 뜬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녹음파일 신고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는 통화 중 보이스피싱 등의 통화를 원터치로 녹음할 수 있고, 통화 종료 후 '통화녹음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스팸전화 번호 및 국제전화에 대해 벨소리로도 음성 안내해 주는 '안심벨소리' 기능도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계획이다.

홈 화면의 디자인도 개선됐다. T전화 홈 화면에 검색창을 제공해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홈 상단에 인기 검색어 10개를 보여 줘 검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5 다운로드 버전은 이날 부터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2.0 버전의 T전화는 17일부터 업그레이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문경 기자

SK주식회사 C&C·IBM
내년 판교에 '클라우드 센터' 구축
5년간 2000억 비즈니스 규모 창출

SK주식회사 C&C와 IBM이 국내외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SK주식회사 C&C는 10일 경기도 분당 사옥에서 박정호 사장과 렌디 워커 IBM 아·태지역 총괄 대표, 제프리 알렌 로다 한국 IBM 대표 등 양사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라우드 센터 공동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클라우드 사업 협력을 통해 5년간 2000억원 이상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규모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주식회사 C&C 측은 "자사의 고객들이 IBM의 전 세계 40개 이상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산업별 강점을 가진 퍼블릭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이 가능해져 급변하는 시장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SK주식회사 C&C의 R&D센터인 판교캠퍼스에 IBM의 퍼블릭 클라우드인 소프트레이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한다.

SK주식회사 C&C와 IBM이경기도 분당 사옥 에서 '클라우드 센터 공동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클라우드 사업 협력에 나섰다. 박정호 사장(왼쪽)과 제프리 알렌 로다 사장이 '클라우드 센터 공동 구축 계약 행사'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SK주식회사 C&C

SK주식회사 C&C는 IT서비스 전문 기업의 강점을 살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각 산업 고객들이 새로운 IT서비스를 부담 없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산업 특화 솔루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IT서비스가 고객별 '맞춤형 IT서비스'였다면 앞으로는 표준형 IT서비스와 ICT 융합 솔루션을 골라 쓰는 '기성복형 IT서비스'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는 셈이다.

특히 SK주식회사 C&C는 ▲개발 플랫폼인 넥스코어(NEXCORE) ▲빅데이터·융합보안 등 ICT 융합 솔루션·플랫폼 ▲특화된 금융 IT서비스 플랫폼 등을 SaaS(소프트웨어형서비스)·PaaS(플랫폼형서비스)로 제공한다.

박정호 사장은 "고객들은 IBM의 IaaS(인프라형서비스)와 SK주식회사 C&C의 SaaS·PaaS를 이용해 글로벌 어디에서든 동일한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초기 비용 부담없이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됐다"며 "SK주식회사 C&C의 IT서비스와 ICT융합솔루션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 IT솔루션의 기성복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화면도 안보이는데…” 애로에 ‘어르신 전용’ 창구·전화 생긴다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라 ① 모바일뱅킹, 노인도 편할까?

금융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뱅킹 등 스마트한 서비스가 늘었다. 하지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의 필요성도 커졌다. 노인층과 장애인, 외국인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누구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자”를 주제로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9일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건강타운의 ‘어르신전용라운지’에서 어르신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스마트뱅킹 이용률 30·20·40대 순
고령자, 간단 업무도 대면거래 선호
동영상제공·큰 글씨 서비스 등
금융서비스 개선 노력 이어져

이른바 ‘손 안의 은행’으로 불리는 각종 모바일 뱅킹이 쏟아지는 가운데 스마트 기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정보기술(IT) 기반 환경에 익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크기가 작아 다루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은행들의 핀테크 경쟁으로 노인층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행서 번호표 뽑아 기다리는 게 편해”

이희순씨(75)는 복지관 가는 길에 자주 은행을 찾는다. 주로 출금이나 예금 등의 간단한 업무를 이용하지만 반드시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한다. 할머니에게는 대면 거래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의 비대면 거래 보다 쉽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는 “그래도 사람한테 가서 (금융거래를) 해야 내 돈이 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확실히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휴대폰은 너무 작아서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냥 은행 와서 기다렸다가 직원한테 말해서 업무 보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번호표를 뽑아 순서를 기다리던 이 할머니는 20분이 지나서야 창구에 가서 예금과 이체 업무를 진행했다.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출금 정도는 ATM기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는 도무지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할머니의 입장이다.

이 할머니 처럼 고령 금융소비자들은 충분한 설명과 상담 없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다루기 쉽지 않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은 물론이고 자동응답기(ARS)를 통한 금융거래도 IT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는 불편할 따름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연령대별 스마트폰 뱅킹 등록고객을 보면 30대(29.8%), 20대(29.6%), 40대(20.8%) 등으로 젊은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50대의 비중은 11.7%, 60대 이상은 4.6%로 가장 적었다.

◆금감원, 고령층 금융서비스 개선 시도

이 같은 상황에 지난 9월 금감원은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5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5%(1300만명)에 이르는 만큼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중 은행의 지점에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가 설치된다. 이 창구에서는 직원 1명을 전담 직원으로 배치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가입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어르신 전용 전화’도 설치된다.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 고령자로 등록하면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재예치·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은행 직원이 처리토록 할 수 있다. 은행별 대형 점포나 고령자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도입되며 향후 보험·증권사에도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교육부터 노인 전용 점포까지

은행권에서도 고령인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점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노인 복지관, 실버대학, 경로당 등을 방문해 올해 총 20회 동안 1300명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은퇴 준비고객과 은퇴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은퇴세미나 ‘웰리치 100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올해만 약 60~70여회가 실시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어르신들의 금융사기 예방교육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회 산하 33개 노인 복지관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직원 강사들이 직접 방문해 ‘골든벨! 실버벨!’ 등의 다양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가입 신청, 공인인증서 만들기 등 거래 화면에 동영상을 제공해 고령층 고객이 쉽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에서도 기존 화면보다 가독성 높은 큰 글씨와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는 ‘큰 글씨 이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JB금융지주 광주은행은 지난 8월 광주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건강타운에서 ‘어르신전용라운지’를 개점했다.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점포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상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열린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연합뉴스

“내년 금융개혁은 현장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 상시화·제도화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연초부터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에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겠다”며 “이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 개혁을 상시화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월 발족해 금융개혁 과제를 논의해 온 ‘금융개혁회의’를 이달 종료하되, 그 기능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중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현장점검반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현장중심 금융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둬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겠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 및 기업부채 등 국내시장의 위험요인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은 15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이정필 기자 roman@

보험사 9월말 ‘지급여력비율’ 소폭 개선

자본확충으로 3개월 전比 6.6%p ↑
금감원 “건전성 높이도록 지도할 것”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올 3·4분기에 소폭 상승했다. 저금리 기조로 채권평가이익이 늘고 일부 보험사가 자본확충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생보사 25곳·손보사 31곳)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284.8%를 기록해 3개월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업법에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적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보험사 RBC 비율은 올해 6월 말 302.1%에서 9월 말 278.2%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3·4분기 들어 저금리 기조로 채권평가이익이 늘고, 일부 보험사가 자본확충을 하면서 RBC 비율이 호전됐다.

요구자본이 2.0%(7119억원) 늘어난 반면 채권평가이익이 4조4307억원 늘면서 가용자본이 4.4%(4조4404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59.3%)이 커 금리 하락 시 가용자본 증가가 요구자본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6월 말보다 5.2%포인트 상승한 297.1%를 나타냈다.

생보사 중에는 규모가 작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이 3001.8%로 RBC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현대라이프생명은 109.5%로 가장 낮았다. 다만 현대라이프는 최근 2대주주인 푸본생명의 도움으로 2200억 원의 자본을 늘려 4·4분기 RBC비율은 212.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 RBC 비율은 8.8%포인트 오른 259.8%를 기록했다.

손보사 중에는 MG손해보험(103.6%)이 가장 낮았으나 역시 10월 825억원을 증자해 4·4분기 RBC 비율은 192.2%로 추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환경 급변으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펠릭스베르토 부스토스 NHMHFC 사장이 10일 필리핀 마닐라 NHMFC 본사에서 주택금융 노하우 전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노하우, 필리핀에 전수한다

주택금융공사
NHMFC와 양해각서 체결

주택금융공사는 10일 필리핀 국책 주택금융기관인 NHMFC(National Home Mortgage Finance Corporation)에 주택금융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MOU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양국의 주택금융 및 주택시장 발전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NHMFC 양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사는 NHMFC와 주택금융 제도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한국형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의 성공 노하우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가구가 평생 자택에 살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필리핀 현지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과의 주택금융분야에 대해 유대강화와 주택연금 노하우 전수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정필 기자 roman@

삼성엔지니어링 기초자산 ELS 투자자 울상

자본잠식 상태인 삼성엔지니어링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상당량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이달부터 손실구간에 진입한 ELS의 만기상환이 도래해 원금손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중동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여파 탓에 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다.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성공 여부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의 미래나 ELS 투자자들의 손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또 실권이 생길 경우 이 부회장이 최대 3000억원까지 사재를 투입해 사들이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만기 앞둔 ELS 41개

연계ELS들 수익률 -90%
대부분 '원금 손실' 수준
"증자가 정상화 앞당길 것"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에프앤자산평가(FNP) 평가대상 공모형 ELS 중 삼성엔지니어링 기초자산의 ELS를 분석한 결과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ELS가 모두 41개로 집계됐다.

이들 ELS의 발행액은 모두 510억원으로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이들 중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ELS만 19개로, 발행액 기준으로 302억원에 달한다.

ELS는 보통 기초자산의 발행시점 가격 대비 50~60%를 원금손실 기준인 '녹인(Knock-In)'으로 한다. 녹인 가격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원금손실 발생 대상이 되는 것이다. 녹인이 발생한 ELS는 보통 발행 후 3년 만기 시점에서 발행가격 대비 85% 이상으로 주가가 회복되면 원금손실을 면하고 수익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발행시점 대비 주가 하락폭 만큼 원금손실이 확정된다.

이들 ELS는 기초자산인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15만4000~17만4000원대에서 발행됐다. 그러나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전날 종가 기준 1만4050원으로 주저앉아 발행 당시 기준가의 10%에도 못 미친다.

◆일부 ELS 수익률 -90%

이미 대부분 ELS가 오래전에 원금 손실(녹인·Knock-In) 구간에 진입한 것은 물론이고 손실률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달 초 만기를 맞은 '대우증권 ELS 8608'(발행액 13억원)과 '동양MY STAR ELS 2777'(14억원)의 수익률은 각각 -91.49%와 -91.69%로 원금을 거의 까먹었다.

한국투자증권 이승혁 연구원은 "중기적으로 매출은 6조원대로 수렴하고, 안정화 시기인 오는 2017년 창출 가능한 영업이익 수준은 1200억~2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면서 "유상증자가 정상화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미포조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도 이달 만기가 돌아온다.

'미운 오리' 신세로 전락한 종목형 ELS는 얼마나 될까.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체 ELS 잔액 78조원 가운데 종목형 ELS 잔액은 1조4000억원(1.8%)에 불과하다. 이 중 현대차 잔액이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다음 순서였다. 이들 종목을 제외한 종목형 ELS 잔액은 700억원대 이하로 집계된다.

최 연구원은 "만기도래 현황을 보면 이달 100억원대 모집금액이었던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미포조선 ELS 만기가 눈에 띈다"며 "모집금액 기준이어서 녹인이 발생했다면 실질 잔액이 훨씬 작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목형 ELS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유안타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ELS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안해야 할 대상은 해당 주가의 움직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구조상의 문제로 비춰질 경우 해당 투자자가 잘못된 투자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B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마진율 상승 전망… 희망 보이는 건설업

⑲ 건설업종, 턴어라운드는 언제?

차입금 감소로 재무안정 확보
해외건설업계, 다소 부진할 듯

건설업종은 수주 감소와 실적 불안이 이어지며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수주를 통해 성장해 온 건설업체들이 저유가와 함께 중동 국가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며 발주 시장도 불투명해 건설업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궁금한 것은 과연 내년에는 건설업종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느냐다. 최근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전국과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은 사실상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이다. 미분양은 투기수요가 진입하기 어려운 물량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감소한다는 것은 실수요자의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유는 점차 사라져가는 전세에 밀려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은 월세에 사는 것 보다는 대출을 받아 매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거래량의 호조는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분양된 5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내년에 본격 공사가 진행된다. 그 동안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었던 건설회사들의 차입금 감소가 예상돼 전체적인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건설시장의 경우 저유가 국면이 지속되면서 발주 시장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외 손실을 야기했던 저마진 프로젝트는 마무리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공사의 종료와 함께 신규수주의 진입으로 손실 폭이 상당 수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016년 건설업종은 매출액은 감소하지만 전체 마진율은 상승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시장은 올해 만큼은 아니지만 거래량 호조로 주택부문의 실적 호조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저유가 국면 지속에 따라 해외수주가 감소하면서 외형성장 둔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김세련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기업분석1팀 선임연구원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초청 해외건설 CEO 조찬 간담회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왼쪽)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 팔래스 호텔에서 해외건설협회가 주최한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건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 행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최우수 내부감사기관 대상 수상

10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IIA KOREA 2015 한국내부감사대회에서 권영상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왼쪽)이 2015년 최우수 내부감사기관 대상을 수상한 후 (사)한국감사협회 변중석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산배분으로 꾸준한 수익 창출 원한다면?

하나금융투자

'JP모간 글로벌매크로 펀드' 출시
다각화·체계적 분석 통한 전략 세워

하나금융투자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정책이 다변화되어 경제의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는 'JP모간 글로벌매크로 펀드'를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JP모간 글로벌매크로 펀드'는 글로벌 주식과 채권 뿐만 아니라 통화, 파생상품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추구한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시장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펀드다.

리서치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경기 순환적, 환경 변화를 파악해 주요 글로벌 거시경제적 테마를 선정하고, 투자상품을 자산군별, 지역별, 섹터별로 다각화하여 다양한 시장 속에서 지속적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이다.

또한 위험 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의 구성 초기 단계부터 각 투자 자산, 투자 전략의 고유 위험과 각 자산 및 전략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변동성을 관리한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병행하고 있다.

운용은 JP모간 멀티에셋 솔루션(Multi Asset Solutions) 그룹에서 담당하며, 멀티에셋 솔루션 그룹 내 글로벌 전략팀과 글로벌 리서치팀의 분석을 바탕으로 토탈리턴(Total Return)팀이 투자 전략을 결정한다. 또, JP모간자산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김현엽 하나금융투자 프로덕트솔루션 실장은 "최근 국가간의 경제정책의 격차가 커지면서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는 글로벌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장기간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서 우수한 경험을 가진 JP모간자산운용의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수료는 A클래스가 선취수수료 1.0%이내 총보수 연 1.515%, C클래스가 총보수 1.815%, 온라인 전용펀드인 C-e클래스는 총보수 1.315%이며 환헤지를 실행한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4년연속 '웹어워드 코리아' 수상

신한금융투자는 2015 웹어워드 코리아, 모바일 웹 금융부문 최우수상에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웹사이트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투자는 2012~2013년 2년 연속 증권분야 최우수상, 2014년 금융일반부문 대상, 2015년 모바일 웹 금융부문 최우수상까지 연속 4년 웹어워드 코리아 수상을 하게 됐다.

웹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유무선 기반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웹 전문가로 구성된 2000여명의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선정, 평가한다.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웹사이트는 모바일 중심의 디바이스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용자 중심적 편의성을 극대로 한 모범적인 금융 모바일 웹의 사례로 평가 받았다.

신한금융투자 옥형석 멀티채널부장은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웹은 증권 및 금융상품 초보투자자들도 쉽게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개인화 된 퀵스타트 메뉴를 신설했다"며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금융정보 전달 등 서비스와 콘텐츠, 편의성 모두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월급 만큼 벌려면… 수익형 부동산 마곡·동탄2 등 유망

안정적 수익에 시세차익까지 웃돈 형성… 공실률도 감소세
실수요층 몰려 청약열기 후끈
서울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오피스텔·상가 주목해볼만

〈부동산시장 상품별 주의사항과 전망〉

구분	주의사항	전망
상가	상업·업무시설 공급 비율이 낮은 곳, 신도시 초기 공실 리스크 주의	신도시 상권, 스트리트, 테라스형, 선 임대 인기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 지역 주의, 테라스, 투룸 등 개방성 좋은 곳 선택	대기업,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는 지역에 한해 강세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여건, 주변 건물 간격 확인 분양·매가 저렴한 지역 검토	대학교, 역세권 입지 소형 아파트 형태 선호
지식산업센터	지하와 고층은 피해야 함, 세금혜택 기간, 기업이전 활발한 시기 투자 유리	취득세, 법인세 감면 등 임차기업 증가 전망
분양형호텔	객실 구분등기 구분, 수익률 보장기간 확인, 위탁운영사의 전문성 고려	공급과잉 우려 휴양지, 공항 지역 인기

자료: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투시도.

올해 부동산 정책 이슈 중 하나는 연 1%대의 저금리 기조였다. 지난해까지 2%대를 유지했던 기준금리가 올 들어 3월과 6월 각각 0.25%포인트씩 하락하면서 1.5%대의 유례 없는 저금리를 유지했다. 여기에 청약제도 개편, 중개수수료 인하, 재건축가능연한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공공택지 신규지정 중단 등이 적용되면서 실수요층 유입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월세 수익 부동산 인기

올 들어 1월부터 10월 말까지 거래된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20만1005건이다. 예년 평균 거래량인 10만~15만건은 물론 지난해 거래량인 15만647건도 훌쩍 넘어섰다. 공급량 증가로 투자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아직 은행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가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수도권 분양시장 호황을 타고 뉴타운이나 택지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구를 중심으로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투자자들은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개발가치가 높은 만큼 안정적인 수익과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청약 열기에서 확인됐다.

지난 3월 서울 왕십리뉴타운3구역에 공급된 오피스텔 '센트라스 비즈'는 정계약 기간 이틀 만에 모두 팔렸다. 10월 경기도 평택시 동삭지구에 공급된 '평택자이 더 익스프레스 1차' 단지 내 상가 또한 청약 당일 하루 만에 15개 점포가 완판됐다.

입주 후에는 분양가에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인근 단지보다 수익률이 보장됐다. 지난해 7월 입주한 광교신도시 내 브랜드 오피스텔인 '광교 에코 푸르지오시티' 전용면적 24㎡는 거래가격 1억2100만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선으로 형성돼 있다.

수익률로 따지면 약 5.17% 가량이다. 같은 해 9월 입주한 '광교 경동 해피리움' 전용 23㎡는 거래가 1억4000만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이다. 수익률은 4% 수준이다.

상업·업무용에 대한 실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공실률(空室率)이 낮아지는 추세다. 10일 국토교통부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를 보면 3분기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12.6%로 1분기 13.5% 대비 1%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중대형 매장의 공실률도 10.8%에서 10.6%로 소폭 하락했다.

◆분양중인 주요 수익형 부동산

연말까지 수도권 대규모 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브랜드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주목할 만하다.

한화건설은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상업4블록에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9~21㎡ 302실이며 상가는 지하 1층(16실)과 지상 1층(36실)에 40~73㎡ 52실이다. 상가는 커피전문점·레스토랑·은행 등의 상업시설로 운영된다. 또한 높은 전용면적(전용률 지하 1층 58.9%, 지상 1층 54.5%)을 확보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단지 인근에는 은평뉴타운 1만6000여 가구 거주자를 포함해 연 평균 865만명의 북한산 등산객이 구파발역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상가 비율은 2.6% 수준에 불과하다.

연면적 15만9759㎡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롯데몰이 내년 완공될 예정이며 가톨릭대학병원(2018년 예정)과 소방행정타운(2018년 예정)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황세를 띠자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붐 세대가 노후 대비로 단지 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투자금액 대비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해 최근에는 젊은 층의 투자도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전셋값 상승, 저금리 기조, 총선효과 등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효과로 작용하면서 자금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마곡, 동탄2신도시, 하남미사지구, 세종시 등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서부이촌동 재개발 속도… 용적률 최대 300%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통과
이촌시범 등 높이 35층 이하 제한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이후 지지부진하던 서부이촌동 일대의 주택 재정비사업이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서부이촌동 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이촌동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2013년 구역 해제되면서 손해를 입은 지역이다. 주민간 갈등을 빚으며 대책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 10월 현장시찰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5차례, 블록별 주민간담회 15차례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8월 발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서부이촌동 전체 차원의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중산시범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 미도연립 등 3곳을 구역에 포함시키고, 인근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포함한 재건축 대상지역을 3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앞으로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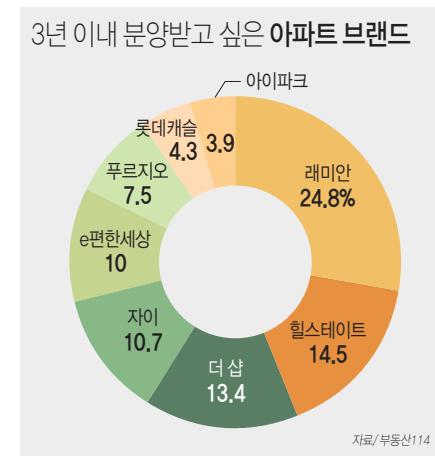
또 용도지역은 철도정비창 개발 등 여건 변화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 한강변 토지이용 복합화 실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한해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은 한강변 주거지 관리를 고려해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중산시범은 높이 30층 이하(남산 7부능선 이상 조망구간은13층 이하), 이촌시범과 미도연립은 35층 이하로 각각 재건축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때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 확보하면 용적률은 추가 허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은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통해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을 확충토록 했다. /박상길 기자

삼성물산 '래미안' 올해 소비자 선호도 1위

부동산 114 조사
응답자 10명 중 9.7명
"브랜드, 아파트값에 영향"



삼성물산 '래미안'아파트가 국내 소비자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114는 지난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국내 39개 건설사 가운데 올해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조사했다.

래미안은 상반기 제일모직과 합병 이후 주택사업이 주춤했지만 실수요층으로부터 선호도를 이어갔다.

올해 사업장 7곳 모두 청약 1순위 마감을 끝내고 정식 계약 기간에 100% 완판을 기록한 것이 주효했다. 다만 주택분양 공급이 서울·경기에 집중된 탓에 지방에서 인지도와 선호도는 2위에 머물렀다.

브랜드 선호도 2위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차지했으며 GS건설의 '자이', 포스코건설의 '더샵' 순으로 작년 대비 상승했다. 이들 브랜드는 올해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흥행에 성공한 공통점이 있었다.

대림산업 e편한세상과 대우건설 푸르지오는 각각 5위와 6위로 전년 대비 순위에서 밀렸다. 롯데건설 '롯데캐슬'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는 각각 7위와 8위로 순위 변동이 없었다.

응답자 10명 중 9.7명은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정도가 '보통'이라는 응답률은 지난해 9.5%에서 11.5%로 높아졌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88.2%에서 85.6%로 낮아졌다.

/박상길 기자

전세 최고가, 강남 타워팰리스 1차 245㎡ 29억5000만원

매매 최고가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5㎡에 77억원에 거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연합뉴스

올해 가장 비싼 전세아파트는 지난 7월 거래된 강남 타워팰리스 1차 전용면적 245㎡로 29억5000만원이었다. 또 가장 비싼 아파트는 2월 77억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5㎡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10일 국토부 실거래가(1월~11월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10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의 거래 건수는 5515건이었다. 전년 동기 전체 거래 건수인 4579건보다 20.4% 증가한 것으로 이달 거래분이 추가될 경우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비싼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서울이다. 11월까지 10억원 이상 거래 중 91.4%인 5043건이 서울에서 거래됐다. 지난해도 서울이 전체 거래량의 91.7%인 4202건 거래돼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지방은 부산에서 10억원 이상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됐다. 올해 지방 거래건수 209건의 68.8%인 144건에 달했다. 다만 부산은 지난해 거래 비중 76.8%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올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로 지난 2월 당시 전용 245㎡(계약면적)의 거래가격이 77억원이었다. 3.3㎡당 1억390만원인 셈이다.

부산에서는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223㎡가 37억9000만원에 거래됐고, 판교신도시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266㎡가 34억원에 거래됐다.

/박상길 기자

리스톤, 천연 소가죽 온수돌침대 6종 출시

투명코팅 등 소재 단점 보완
모던·세련… 新트렌드 반영

리스톤 온수돌침대 신제품. /리스톤

스톤 퍼니처 기업 리스톤이 고급 천연 소가죽 소재와 모던한 디자인을 적용해 개발한 온수 돌침대 6종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리스톤의 온수 스톤 매트리스와 디자인적으로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천연 가죽 침대 모델이다. 가죽의 오염 방지와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 코팅 작업을 한 세미에닐린 천연 소가죽 소재를 적용해 관리가 까다로운 천연 소가죽의 단점을 보완해 가죽의 내구성은 높이고 천연 가죽의 고급스러움은 살렸다. 또한 기존 돌침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최신 침대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시킨 것이 특징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새로 나왔어요

CJ푸드빌
비비고 신메뉴 10종 한정 판매

CJ푸드빌의 비비고가 추운 겨울 따끈하게 즐길 수 있는 홍게살 돌솥비빔밥 등 겨울 신메뉴를 10일 출시한다. 동해산 홍게와 국내산 오징어, 여수산 홍합 등으로 맛을 낸 이번 신메뉴는 3월 첫 주까지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매콤 해물 돌솥 비빔밥'(사진)은 쫄깃한 여수산 홍합과 국내산 오징어를 듬뿍 얹고 돌미나리와 콩나물을 곁들인 밥을 매콤한 양념장에 비벼먹는 메뉴다. 비비고는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13일까지 비비고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bigokorea)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비비고 인기메뉴 1인 식사권 등을 증정한다. /유현희 기자

커피에반하다 '바나나빵·계란빵'
커피와 즐기는 추억의 간식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커피에반하다가 추억의 간식 시리즈 1탄 '바나나빵'과 '계란빵'을 새롭게 출시했다. 커피에반하다 추억의 간식은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을 재현하기 위해 탄생했다. 신메뉴 '커피에 바나나빵'은 부드러운 빵 속에 호두를 첨가하여 건강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며, '커피에 반한 계란빵'은 부드러운 빵 위에 계란과 모짜렐라·체다 치즈, 베이컨이 함께 어우러져 담백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유현희 기자

동원F&B '제주돼지 왕만두'
生 제주돼지·국내산 야채가 가득

동원F&B가 100% 제주산 생(生) 돼지고기와 국내산 야채로 속을 꽉 채운 프리미엄 왕만두 '개성 제주돼지 왕만두'(사진)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제주 청정지역에서 자란 돼지고기에 양배추, 양파, 부추, 무, 배추, 마늘 등 6가지 신선한 국내산 야채로 만두의 맛과 영양을 살렸다. 또 VDP(Vacuum Dough Process) 공법으로 반죽 속의 공기를 제거해 만두피에 쫄깃함을 더했다. 가격은 469g 2개 묶음에 9500원. /유현희 기자

롯데푸드 '검은콩두부 왕교자'
건강함과 함께 중량도 늘렸다

롯데푸드가 검은콩두부를 넣은 '엔네이처 검은콩두부 왕교자'(사진)를 내놨다. 국내산 검은콩 두부와 또 다른 블랙푸드인 흑임자까지 넣어 고소한 맛과 건강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왕교자'라는 이름답게 크기도 큼직하다. 개당 약 14g이었던 기존 교자만두에 비해, 엔네이처 검은콩두부 왕교자는 약 35g으로 두 배 이상 중량을 늘렸다. 가격은 840g기준 9480원. /유현희 기자

편의점 커피가 전문점 보다 싸다고?

'빽다방' 보다 2배 비싼 편의점 커피 있다

편의점커피는 차별화·고급화
커피전문점은 가격거품 줄이기

스타벅스 5종이 가격 가장 높아

편의점 커피가 커피전문점 커피보다 저렴하다는 편견이 깨졌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RTD(병, 캔, 페트 음료) 커피는 커피전문점 가격의 절반 수준이면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RTD커피가 고급화를 지향하고 커피전문점들이 가격거품 줄이기에 나서면서 가격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메트로신문이 10일 편의점업계에 의뢰해 2000원 이상 비교적 고가인 RTD커피의 100㎖당 가격을 환산한 결과 19종의 제품이 커피전문점 아메리카노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디야, 빽다방, 메머드커피 등 가격경쟁력이 높은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1500원~2500원선이다. 이를 100㎖ 기준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디야가 704.2원, 메머드커피가 574.7원, 빽다방이 422.5원에 불과하다.

RTD커피 가운데 100㎖당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은 스타벅스 더블샷 에스프레소로 1090.9원에 달했다. 이는 이디야보다 30%, 빽다방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조사 대상 RTD제품 중 빽다방의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은 5종이었다. 모두 스타벅스 브랜드였다. 스타벅스 RTD음료는 동서식품에서 생산한다.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시리즈 4종의 경우 100㎖당 가격은 1032㎖이었다.

편의점 RTD 커피 **가격 및 용량**

	상품명	100㎖당 가격	가격	용량
캔(NB)	(스타벅스)더블샷에스프레소	1090.9	3,000원	275㎖
	(맥심)TOP더블랙	763.2	2,900원	380㎖
	(맥심)TOP스위트아메리카노	763.2	2,900원	380㎖
	(조지아)고티카블랙	743.6	2,900원	390㎖
	(조지아)고티카아메리카노	743.6	2,900원	390㎖
	(칸타타)아메리카노	743.6	2,900원	390㎖
	(칸타타)프리미엄라떼	743.6	2,900원	390㎖
	(맥심)TOP마스터라떼	800	2,200원	275㎖
	(맥심)TOP스위트아메리카노	800	2,200원	275㎖
	(맥심)TOP초콜렛모카	800	2,200원	275㎖
	(조지아)고티카아로마라떼	814.8	2,200원	270㎖
	(조지아)고티카아로마블랙	814.8	2,200원	270㎖
	(칸타타)더치블랙	800	2,200원	275㎖
	(칸타타)아메리카노	800	2,200원	275㎖
	(칸타타)프리미엄라떼	800	2,200원	275㎖
병	(스타벅스)프라푸치노모카	1032	2,900원	281㎖
	(스타벅스)프라푸치노스키니모카	1032	2,900원	281㎖
	(스타벅스)프라푸치노오리지날	1032	2,900원	281㎖
	(스타벅스)프라푸치노카라멜	1032	2,900원	281㎖

조지아, 맥심, 칸타타 등도 커피전문점보다 비싼 RTD브랜드가 수두룩했다. 조지아 고티카 아로마블랙과 조지아 고티카 아로마라떼의 가격은 100㎖ 기준 814.8원이었고 맥심 TOP 마스터라떼, 스위트아메리카노, 초콜렛모카와 칸타타 더치블랙, 아메리카노, 프리미엄라떼가 8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조지아 고티카블랙, 조지아 고티카아메리카노, 칸타타아메리카노, 칸타타 프리미엄라떼의 100㎖당 가격은 743.6원으로 이디야보다 40원, 빽다방보다는 280원 가량 비쌌다.

한편 커피전문점 톨사이즈(355㎖)보다 용량이 큰 제품들도 많았다. 맥심TOP더블랙, 맥심TOP스위트아메리카노는 380㎖에 달했고 조지아 고티카블랙, 조지아 고티카아메리카노, 칸타타 아메리카노, 칸타타프리미엄라떼는 390㎖로 용량이 가장 많았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RTD커피들이 원두와 추출법의 차별화를 통해 품질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며 "반면 커피전문점들은 가격 거품 논란이 커지자 대중적인 가격의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면서 최근 들어 가격 역전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체리쉬, 체리쉬마스엔 60% 할인 디자인 가구 기업 체리쉬가 10일 오전 고양시 화전동에 위치한 체리쉬 본사 매장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 '체리쉬마스'를 앞두고 주요 할인품목을 공개했다. 행사는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전국 직영점에서 열린다. 세련된 디자인 가구부터 소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다. /체리쉬

이마트에브리데이
'2015 연말 총결산 할인대전'

신세계그룹의 기업형슈퍼마켓(SSM) 계열사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오는 16일까지 올해 인기상품 200여 개를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2015년 연말 총결산 할인대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딸기, 수입산 냉장 찜갈비, 러시아 스노우크랩, 신동진 십장생쌀 한우 불고기 등의 신선식품과 피죤, 샴푸 등의 생활용품을 정상가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선보인다.

13일까지 전국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신세계 간편결제 시스템인 SSG페이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김성현 기자

"아웃도어 의류업체 불공정관행 지속적 감시"

공정거래위원장, 8개사 대표와 간담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아웃도어 업체들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과도한 클레임 비용을 부과하거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조사하겠다"며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안양별관에서 코오롱, 삼성물산, LF, 블랙야크, 네파 등 8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는데 공정위가 주안점을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비자들이 제품에 문제를 제기(클레임)하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반품이나 수선을 요구한다. 이때 일부 업체가 납품가보다 더 많은 반품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하자가 있어도 반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아웃도어 의류 등 6개 업종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정 위원장은 "과도한 클레임 비용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등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제제 이전에 최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원·수급사업자 간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며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웃도어 의류 제조사 대표들은 대금미지급과 과도한 클레임 문제와 관련, 그동안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업체와 상생 협력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2012년부터 하도급대금을 10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협력사 귀책사유에 따른 클레임의 경우 납품가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레임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선 부당한 클레임 부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도 검사절차·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제품검사 매뉴얼을 제작·공유하고, 검사결과를 검사 후 즉시 서면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LF는 제조불량의 원인과 귀책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의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 클레임을 집행하고, 협력업체의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현희 기자

백화점 'K-세일데이' 이은 '크리스마스 대전'

겨울·파티용품 최대 70% 할인
대형마트는 식품·완구까지 다양

주말 쇼핑 가이드

이번 주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연다.

◆백화점, 대대적인 크리스마스 기획전

롯데백화점 노원점은 11일부터 17일까지 7층 행사장에서 '프로방스 홈·템퍼 진열상품전'을 열고 최대 70% 할인 판매에 나선다. 구리점은 같은 기간 동안 '아웃도어 방한의류 대전'을 열고 K2, 아이더, 블랙야크 등 11개 브랜드를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13일까지 '겨울 상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압구정본점은 해당 기간 동안 '남성 아우터 기획전'을 열고 남성 자켓, 패딩 등을 40~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무역센터점에서는 '화이트 스타일링 페어'를 벌인다.

AK플라자 수원점을 이달 13일까지 '크리스마스 홈파티 식기&테이블웨어 특별전'을 열고 덴비점 품목을 40~50% 할인한다. 분당점은 17일까지 노스페이스, 아이더 등이 참여하는 '송년감사 아웃도어&스포츠 대전'을 진행한다.

◆대형마트, 신선식품부터 완구까지

롯데마트는 이번 주말 '청정제주 특집' 행사를 열고 제주산 당근, 참소라, 브로콜리, 무, 생물 고등어, 갈치 등을 선보인다. 또 '베이직 아이콘 겨울의류 대전'에서는 플리스 점퍼, 조끼를 각 1만9900원, 2만9900원 가격에 1+1로 구입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크리스마스 먹거리 사전예약'과 '크리스마스 완구 기획전', '마더케어 산타 의류' 기획전을 개최한다.

크리스마스 먹거리 사전예약은 크리스마용 케이크 6종 사전예약을 하면 정상가 대비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완구 기획전에서는 정글 블록, CAT 트럭 헬멧 삽 세트, CAT 기차레일세트, 무선 조종 자동차, 대형곰인형, 마트계산대놀이세트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스타워즈 모음전'도 함께 진행된다. /김성현 기자 minus@

"해피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지하에서 만나는 특별한 성탄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미술전시회. /서울시

을지로역 갤러리서 미술전시회

연말을 맞아 지하 갤러리에서 특별한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10일 서울시설공단은 내년 1월 28일까지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라는 주제로 신진 작가들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의 올해 마지막 전시로 백은영, 이경화 두 신진작가가 표현한 겨울 풍경을 다양한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이경화 작가는 익숙한 광경을 본인만의 감성에 따라 다르게 읽어 패턴화했다.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성을 자신만의 색으로 표현해 작품을 보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백은영 작가의 작품은 동화의 한 장면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2016년에도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가 시민에게 의미있는 장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뜨리애 갤러리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 지하보도 벽면에 조성된 전시공간이다.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페인팅, 신진작가 판화전 등 올 한해 다양한 전시회를 열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 2 3 4

셰프와 함께 하는 요리

깍둑썰기한 닭고기, 땅콩·피망과 볶으면…

최범휘의 **쿵파오지띵**

궁보계정(宮保鷄丁)은 닭고기를 주재료로 땅콩, 고추 및 각종 야채가 들어간 볶음요리다.

요리명의 '정(丁)'은 닭을 깍두기 형태로 썰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만든 닭요리는 끝에 '계정(鷄丁)'이 붙는다.

이 요리는 아편과 관련이 있다. 청나라 말 아편이 쓰촨 지역에 만연하자 총독이었던 정보정(丁寶楨)은 금연령을 내리고 아편을 피우거나 팔면 사형에 처한다는 방을 붙였다.

그런데 정보정은 자신의 큰 아들이 상습적으로 아편을 피우고 아편 매매에 관련이 있다는 투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정보정은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금연령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편 밀매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사형은 집행되었고, 정보정의 단호한 의지가 백성들에게 알려졌다.

비록 대의를 위해 아들을 죽였지만 정보정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정보정의 요리사는 총독이 건강을 해칠까 염려했고, 정보정의 근심을 해소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요리를 만들 궁리를 했다.

그때 주방엔 닭고기와 땅콩, 그리고 피망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요리사는 총독을 위해 정성을 다해 닭고기를 깍둑썰고 땅콩을 기름에 한번 튀겨낸 뒤 다시 그것들을 피망과 함께 단시간에 볶아 술과 함께 올렸다. 정보정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는데 뜻밖에 음식이 맛이 좋아 요리사에게 음식의 이름을 물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 낸 요리이기에 이름이 있을리 만무했다. 요리사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오로지 총독을 위해 만든 것이고, 총독이 태자소보(太子少保)라는 관직을 가진 까닭에 사람들이 그를 정궁보(丁宮保)라 부르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요리사는 총독에게 "이 요리의 이름은 궁보계정(宮保鷄丁)입니다"고 답했다.

이때부터 궁보계정은 사천성 동부의 도시인 만현(萬縣)에서부터 전해지기 시작해 정보정의 정치적 성공과 함께 빠른 속도로 사천 지방에 퍼지면서 사천의 대표적인 요리로 자리매김했다. /차이나플레인 성수점 셰프

재료

닭다리 살 200g, 땅콩(요과) 20ea, 마른 홍고추(사천고추) 10g, 대파 1/4단, 청피망 1/2개, 홍피망 1/2개, 양파 1/4개, 계란흰자 1개, 감자전분가루 10g, 청주, 식용유, 고추기름

소스

물 4큰술, 간장 3큰술, 설탕 3큰술, 굴소스 1큰술, 후춧가루 약간 : 한번 끓여서 식혀 놓는다

조리법

1 닭다리 살을 정사각형 2cm 정도로 썬 다음 청주, 간장, 계란흰자, 후춧가루로 밑간을 하고 감자전분을 넣어 섞은 뒤 기름에 익힌다.

2 대파, 청피망, 홍피망, 양파를 정사각형 2cm정도로 썰어서 준비하고,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와 마른 고추를 먼저 볶아준 후 청주, 간장을 약간 넣어 향을 낸다.

땅콩, 청피망, 홍피망, 양파를 같이 볶는다.

3 센 불로 올려 익힌 닭고기를 넣고 만들어놓은 소스를 조금씩 넣어 주면서 섞어준다.

4 고추기름을 약간 넣고 볶아낸 뒤 그릇에 담는다.

본 코너는 소중한 아기의 소규모 백일·첫돌을 빛내는 프리미엄 중식당 차이나플레인(www.chinaplane.co.kr)과 함께 합니다.

배우 심형탁과 함께 한 '닥터 리덕수 CF'

리더스코스메틱 '바이럴 영상' 선보였다

산성앨엔에스의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리더스코스메틱'이 배우 심형탁과 함께한 온라인 영상(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배우 심형탁을 '닥터 리덕수' 역으로 발탁, 신개념 시험관 팩인 '리더스 퍼스트 앰플 마스크 팩'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영상 속에서 피부를 지키는 리더스 피부 연구소장으로 분해 기내에서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로 위기를 맞이한 피부 응급 환자를 시험관 팩인 '리더스 퍼스트 앰플 마스크 팩'으로 회생시키는 내용을 심형탁의 코믹스러운 연기에 담아 완성도를 높였다.

심형탁은 촬영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평소 피부관리 아이템으로 마스크팩을 선호한다며, 시험관 팩은 패키지가 워낙 독특하고 휴대가 편해 앞으로 많이 애용하게 될 것 같다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리더스코스메틱 관계자는 "'닥터 리덕수' 심형탁씨와 함께한 영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재미와 정보를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터 리덕수 시즌 2도 제작 예정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 드린다"라고 전했다.

'닥터 리덕수' 영상은 리더스코스메틱의 시험관 팩 마이크로 사이트(http://event.leaderscosmetics.com)에서 볼 수 있으며, 메이킹 영상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유현희 기자

'한강공원 마라톤' 신청하세요

16일까지… 1000명이상 단체

서울시가 한강공원 마라톤대회 신청을 받는다.

10일 서울시는 2016년 상반기(1~6월) 개최하는 한강공원 마라톤대회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단체별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수시접수는 받지 않는다. 단 참가인원이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마라톤대회의 경우 위 기간과 관계없이 행사예정일 100~15일 전까지 수시접수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대회 개최계획이 담긴 신청서와 단체 소개서를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yunsukim@seoul.go.kr) 또는 등기우편(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시인·디자이너 손 잡은 커피… 문화에 스며들다

시 등 작품들 제품에 직접 이어내

문화·예술 함께하는 휴식처 변신

"커피는 문화다."

커피전문점들이 문화와 예술과의 컬래버레이션에 앞장서고 있다. 커피전문점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닌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커피전문점 드롭탑은 SNS 공감시인 '하상욱'과 콜라보레이션으로 2015 크리스마스 시즌 메뉴 '프로즌 핫 초콜릿(사진)'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상욱 시인은 페이스북에 게재하던 짧은 시가 대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시인으로 데뷔하게 됐다. 드롭탑은 하상욱 작가의 시들을 드롭탑만의 문화적 감성과 함께 '프로즌 핫 초콜릿'의 '음료픽'에 담았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안나 수이(Anna Sui)'와 손을 잡았다. '안나 수이'는 1999년 뉴욕 컬렉션을 통해 데뷔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이자 동시에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이다. 옷과 화장품, 향수, 액세서리, 주얼리 등 폭넓은 영역의 다양한 제품을 통해 에스닉과 빈티지, 로맨틱과 판타지의 감성을 아름답게 풀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컬렉션은 빈티지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안나수이 로즈 DW 머그', '안나수이 부티크 DW 머그', 'SS 스웰 안나수이 워터보틀', '안나수이 토트백', '안나수이 카드' 등이 출시됐다.

드롭탑관계자는 "이제는 커피전문점이 단순히 음료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함께 감상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드롭탑은 하상욱 시인과의 컬래버레이션 메뉴처럼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과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심기남 이대목동병원 교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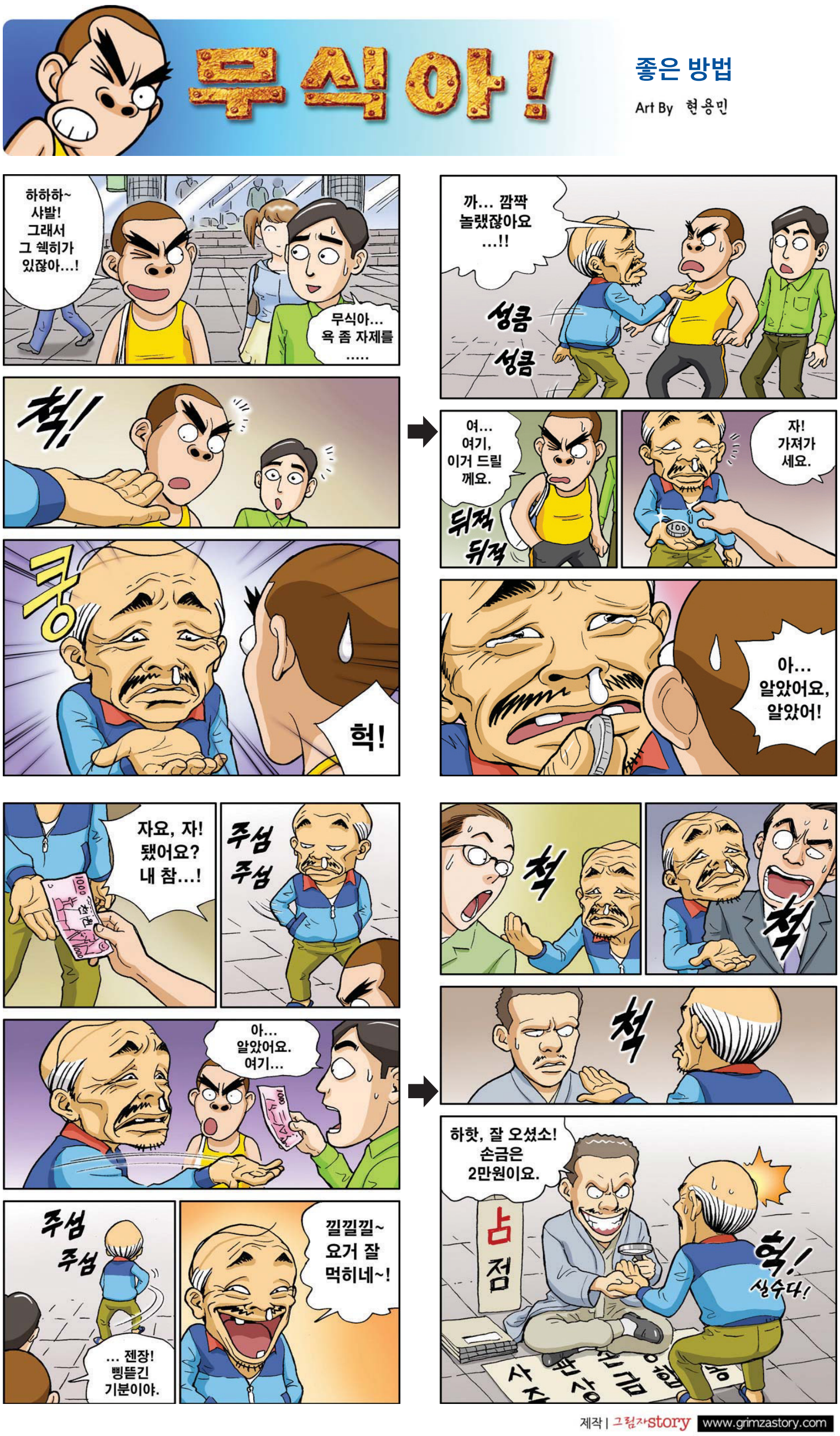
대한소화기학회 최우수 논문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심기남 교수와 이화여대 내과학 박사 과정 나윤주(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임상조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7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소화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위암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CagA에 따른 RUNX3 불활성화와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암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CagA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RUNX3의 핵 내 발현 소실을 임상적으로 확인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CagA 양성 조기 위암에서 RUNX3 메틸화가 위암의 분화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도 규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전액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 /신원선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다툼이 잦은 연인과 궁합이 궁금합니다 믿음을 갖고 시간을 더 보내면 좋은 결실

supassu 여자 86년 2월 18일 양력 14시 40분
남자 85년 12월 7일 양력 1시

Q 무척 연이 깊다고 생각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 또한 깊지만 막상 결혼을 생각하기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 86년 양력 2월 18일 14시 40분 생입니다. 남자 85년 양력 12월 7일 생입니다.

만나는 2년 내내 많이 싸우고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연이 될 궁합인지 이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인연이 앞으로 있을지 혹은 이 사람과 잘 맞춰나갈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계 작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다소 불안한 감이 있어 앞으로 직장 운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A 시시각각 늘 변화하는 현실에서 궁합을 논한다는 것이 미래의 등불이 된다면야 얼마나 감사하고 벅찬 일일까 마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미래의 현실은 일상적으로 보는 궁합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팔자에는 음양이 교체합니다. 즉 긍정과 부정이 각기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운의 흐름에서 부정이오면 등 돌리는 것이고 긍정의 운이 오면 계획하지 않아도 행운의 여신이 늘 존재하기에 여기에서 시간의 필요성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내온 2년의 시간들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으나 아직 두 분은 시간을 더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싸우거나 부딪치는 사람들을 보면 속궁합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일반적 궁합을 말 할 때 흔히들 '겉궁합'과 '속궁합'이 있다고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과 실제 생활을 따져보면 겉궁합은 그저 표면적인 상태이고 속궁합을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역(易)에서 팔자 세력이 균형 잡혀 있으면 중화의 기를 얻어 백년해로 할 수 있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 희로애락과 여러 가지 굴곡을 겪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귀하의 성정은 '밤하늘에 빛'으로 연구하고 교정하는 성미가 있으며 권위와 명예에 대한 탐심(貪心)이 강합니다. 암장(暗藏:숨겨둔 것)되어 있는 관성으로 이성 문제로 인한 번민이 상존하지만 남자는 '별 두 개의 두령격'으로 겉으로는 고집 세지만 속으로는 온화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궁합은 부부궁에 귀문(鬼門:귀신이 들락 거리 듯 비정상)과 형살(刑殺:형벌을 받듯이 고난)이 있어 서로를 향한 지나친 갈구로 시련이 따르지만 헤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니 믿음을 담고 결실을 이루도록 해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2월 11일 (음 11월 1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운이 쇠하고 집안에 근심이 쌓입니다. 60년생 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은 불가합니다. 72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84년생 적성을 빨리 찾는 것이 좋습니다.

소 49년생 일 처리는 큰 것을 정리하고 작은 규모로 하세요. 61년생 가정에는 충실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73년생 명예와 부가 따르게 됩니다. 85년생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호랑이 50년생 때가 잘 맞지 않아 힘듭니다. 62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을 것 입니다. 74년생 중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86년생 차기를 기다리며 취업공부에 열중하세요.

토끼 51년생 다툼은 항상 주의하세요. 63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75년생 좋지 않은 흐름에 있어 막힘이 많습니다. 87년생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 52년생 부도덕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곤란에 처하겠습니다. 64년생 귀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76년생 재물운이 좋습니다. 88년생 구설수를 주의하세요.

뱀 53년생 자금회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65년생 쉽게 사람과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77년생 과소비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9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말 54년생 2년을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6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78년생 평소 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90년생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양 55년생 치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67년생 사업은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79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게 됩니다. 91년생 여기저기서 구원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원숭이 56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68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입니다. 80년생 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2년생 성적에 상관없이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닭 57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69년생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고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81년생 큰 욕심을 내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93년생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개 58년생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 일이 태평스럽습니다. 70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82년생 사소한 것에 신경 쓴다면 득이 있겠습니다. 94년생 북쪽으로 가세요. 길합니다

돼지 59년생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입니다. 71년생 차조심해야 하겠습니다. 83년생 유명한 회사에 당당히 취직됩니다. 95년생 주변의 도움을 얻어 어려움을 헤쳐 나갑니다.

SUDOKU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7		1					
2						8	5	
			8					4
		5					1	
1	8		6		2		9	7
	6					5		
3					7			
	2	4						8
					8		6	2

	6	4		8				5
		2					4	
	1					7		
			4				2	3
		8	1		7	9		
1	4				6			
		1					7	
	2					8		
6				7		3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2	6	1	8	3	4	7	5	9
8	7	3	1	5	9	2	6	4
5	4	9	7	6	2	8	1	3
3	8	5	9	1	6	4	2	7
7	9	4	2	5	3	6	8	1
6	1	2	5	4	7	3	9	8
4	5	8	3	2	1	9	7	6
9	3	6	4	7	5	1	2	8
1	2	7	6	9	8	5	4	3

6	8	9	2	7	4	3	5	1
9	3	8	5	1	6	4	7	2
2	7	4	6	9	8	5	1	3
1	4	3	9	2	6	7	8	5
7	6	2	9	1	4	5	8	3
5	9	1	3	8	7	6	2	4
4	2	7	1	3	5	8	9	6
3	1	5	8	6	9	2	4	7
8	5	6	7	4	2	9	3	5

우리군 사랑리의 초원이~
제이 (김견우)
혼자만의 아픔이 있는 여자..
한수연 (LPG)
사랑리의 훈훈한 만능재주꾼!
개그맨 문용현
사랑리의 바보 백과사전?!
최동호
문화체육관광부 1+1선정작!
군수가 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군수납시오
대한민국 대표뮤지컬!
2015.12.4 ~ 2016.1.31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2관
화~금 8시 | 토,공휴일 3시,7시 | 일 3시 (월요일 공연없음)
출연 | 김견우(제이), 문용현, 한수연, 최동호, 장지용, 조민정, 최연동, 이인화, 권오성, 여신우, 김세중, 박소윤, 서인권, 서예화, 한아정, 황지원, 서지은
PD 박경원 | 원작 이욱현 | 연출 김종해 | 음악감독 전상헌 | 무대감독 김형도 | 기획 임덕희 | 홍보 한정아 | 안무 강경연 | 미술감독 이유정 | 웹디자인 김명남
제작 | 기획 | 후원 | 협찬 |
공연문의 02) 765-9523
예 매 인터파크, YES24

"젊은 세대도 사로잡을 독창적 사운드"

70년대 풍미 제프 린, 15년 만의 신보
전자 사운드로 새로운 음악적 시도

70년대를 풍미한 영국 출신의 아트 록 밴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이하 ELO)를 이끌었던 프로듀서 제프 린이 15년 만에 ELO의 이름으로 새 앨범 '얼론 인 더 유니버스(Alone In The Universe)'를 발표했다.

새 앨범 '얼론 인 더 유니버스'는 싱글로 먼저 발표된 '웬 아이 워즈 어 보이(When I Was A Boy)'를 비롯해 총 10곡을 수록했다. 밴드의 트레이드마크인 '주크 박스 우주선'을 앨범 커버 아트에 담았다. 과거의 팬은 물론 젊은 음악 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앨범을 채웠다.

그동안 프로듀서로 활동해온 제프 린은 2014년 영국 라디오 BBC2가 하이드 파크에서 개최한 '페스티벌 인 어 데이'에서 ELO의 이름으로 무대에 오르면서 새 앨범을 기획하게 됐다. 최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만난 제프 린은 "근 28년 만에 오른 라이브 공연에서 환상적인 관객 반응을 보며 새 앨범을 만들고 싶어졌다"고 전했다.

앨범 제목은 보이저 1호가 태양권을 벗어났다는 뉴스 기사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제프 린은 "기사를 보고 '우주에 홀로 있는 것만큼 외로운 일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에서는 특별한 테마를 아우르기보다는 사운드의 통일성에 보다 집중했다. 그는 "현악기 연주를 쓰지 않는 대신 전자 사운드를 넣어 기존과 조금 다른 사운드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ELO가 생소한 젊은 음악 팬들에게도 그동안 시도해온 독창적인 사운드가 신선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언제나 정형화되지 않는 사운드를 시도한다. 그것이 바로 내 음반에 들어있는 음악의 특성이다. 평범한 사운드는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지만… N포세대 처절함 담았어요

"영화를 본 후에 커피쿠폰을 볼 때마다 묘한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커피쿠폰 이벤트를 연인이나 부부사이에 한번쯤 써먹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만난 한예리(30)가 던진 당찬 발언이었다.

영화 '극적인 하룻밤' **한예리**

그간 '해무' '동창생' '코리아' 등 다수 작품에서 극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을 연기해온 한예리는 '극적인 하룻밤'으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도전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까지 사랑스러울 수 있을지 가늠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많은 분이 제가 무겁고 거친 역을 좋아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이번 작품으로 한예리라는 배우가 밝은 면도 있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대중의 다양한 입맛을 골고루 충족시키는 배우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감독님이 시후를 정말 예쁘게 화면에 담아주셨어요. 관객 분들도 시후를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N포세대 상황' 연기했지만
스태프 배려에 되려 노출 욕심
전성기는 좀 더 나중이었으면

'극적인 하룻밤'은 헤어진 애인의 결혼식에서 만난 남녀가 강렬한 하룻밤을 보낸 뒤 '원나잇 쿠폰'을 만들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한예리는 전 남자친구에게 헌신하다가 차인 연애하수 시후를 연기했다. 정과 마음을 준 애인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 받는다. 그런 시후가 극단적인 생각으로 옛 남자 친구의 친구 정훈을 찾아가 하룻밤을 같이 보낸다는 이야기는 관객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하기호 감독은 '극적인 하룻밤'의 시후를 한예리를 염두에 두고 썼다. 독특한 면과 현실적인 면을 오가는 시후의 성격을 한예리라면 잘 표현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훈이라는 인물은 감독님이 생각했던 본인의 이야기도 있고, 정훈에게 바라는 모습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후의 상태나 감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려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직접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많아요. 많은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의 감정 상태가 드러나는 싸우는 장면, 시후가 엄마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장면 등이 한예리와 감독의 의견 조율로 태어난 장면이다. 특히 싸우는 장면은 한예리와 윤계상의 즉석 애드리브로 완성됐으며 두 배우가 꼽는 가장 인상적인 신이다.

"사실 싸우는 장면 대사가 굉장히 구구절절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대사를 만들었어요. 그 장면이 남녀의 성향 차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의견을 모아 만든 장면이라 애착이 가요. 그리고 전화 통화 신은 시후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감독님께 요청한 장면이에요."

함께 촬영한 배우 윤계상은 한예리를 집중력이 뛰어난 배우라고 극찬했다. 19금 장면을 찍을 때 격하다 못해 무릎이 까졌지만 개의치 않고 촬영하는 한예리의 부상투혼에 놀랐단다.

"수위가 많이 높았나요?(웃음) 솔직히 감독님과 현장 스태프가 많이 배려해주셔서 노출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할 거라면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가벼운 로맨스물로만 보기에 영화는 N포세대의 처절한 상황을 정훈과 시후를 통해 신랄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또 무겁지 않게 그려냈다.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게 20~3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화예요. 차가운 현실의 청춘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과 '사람'만은 등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배우'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다는 한예리는 욕심이 많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다. 전성기를 좀 더 먼훗날로 생각하고 있었다.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배우'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기준에 준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좋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 안에 다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 전성기는 지금이 아니라 좀 더 나중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화 '사냥'을 촬영하고 있어요. 안성기 선배님과 작업해요. '배우'라는 타이틀을 잘 짊어지고 가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배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본받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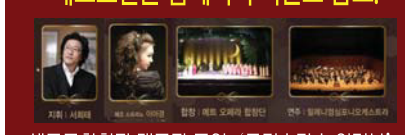
동물적인 표현력과 작품 해석능력까지 겸비한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연기가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25분

멤버들의 불만 사항을 모두 개선한 최고의 촬영장 모습이 공개된다. 멤버들은 꿈꿔왔던 완벽한 촬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제작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 멤버들은 반대로 시청자들의 불만 사항 해결에 나선다.

메트로신문 이벤트
'크리스마스 인 러브' 초대권
이벤트기간: 2015.12.11~12.16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이벤트 참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 '크리스마스 인러브'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티켓을 드립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12:10 국악한마당	11:30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	11:00 찾아라! 맛있는 TV	10:55 접속! 무비월드	10:20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스페셜	11:20 응답하라 1988 (재)	09:00 업사이드 다운	10:10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3:00 동물의 왕국	12:40 개그 콘서트 (재)	12:00 MBC 뉴스	12:00 SBS 뉴스				
14:00 헬로카봇 2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2:10 육룡이 나르샤 (재)	11:40 썰전 스페셜	13:10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 (재)	11:00 엘리시움(2013)	13:00 백여우 전설
14:30 두리둥실 뭉게공항 3	14:15 오 마이 비너스 (재)	13:35 달콤살벌 패밀리 (재)					
15:30 한국인의 밥상 (재)		15:40 MBC 뉴스	14:25 런닝맨 (재)	13:00 JTBC 뉴스	14:50 수요미식회 (재)	13:10 엑스맨 탄생:울버린	15:30 미이라 2
16:35 한국다움! 문화대한민국	16:20 슈퍼맨이 돌아왔다	15:50 쇼! 음악중심	15:25 SBS 뉴스	13:2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스페셜			
17:25 나눔의 행복, 기부			15:35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5 (재)		16: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5:20 빅매치	18:0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17:40 2015 희망로드 대장정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7:00 우리 결혼했어요	16:50 토요일이 좋다	15:0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9:20 천사와 악마
19:10 다큐 공감		18:25 무한도전	〈오! 마이 베이비/주먹쥐고 소림사〉	16:20 비정상회담 (재)	18:00 응답하라 1988 (재)	17:40 지.아이.조-전쟁의 서막	
20:00 오늘, 미래를 만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19:55 MBC 뉴스데스크		17:40 히든싱어 4 스페셜	19:50 응답하라 1988		
21:00 KBS 뉴스 9		20:45 엄마	20:00 SBS 8 뉴스			20:00 테이큰 2	22:00 어바웃 타임
21:4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1:15 연예가 중계	22:00 내 딸, 금사월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19:40 JTBC 뉴스룸	21:40 SNL 코리아 시즌6		
22:50 프랑스판 국산으로만 살아보기	22:35 사람과 사람들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2:00 애인 있어요	20:30 JTBC 드라마 스페셜 빠담빠담		22:00 덕수리5형제	24:10 아드레날린 24:2
23:40 콘서트 7080	23:35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24:40 능력자들 스페셜	23:10 그것이 알고 싶다	21:40 아는 형님	23: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4:45 T 타임			24:15 더 랠리스트	23:00 히든싱어 4		24:10 아이언맨 3	
12:10 전국노래자랑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12:00 MBC 뉴스	09:30 TV 동물농장	10:50 히든싱어 4 (재)		09:00 엑스맨 탄생:울버린	10:00 드래곤 길들이기
13:20 스카우트 2	11:4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0:50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재)		11: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4:10 2015-2016 프로배구	13:05 대국민 토크쇼	13:15 화려한 유혹 (재)	12:00 SBS 뉴스			11:10 아이언맨 3	12:00 어바웃 타임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안녕하세요 스페셜		12:10 정글의 법칙 (재)	13:00 JTBC 뉴스	13:00 SNL 코리아 시즌6 (재)	13:50 테이큰 2	
17:00 KBS 뉴스		15:35 MBC 뉴스	13:10 리멤버-아들의 전쟁 (재)	13: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50 콩트앤더시티 (재)		14: 00 핸콕
17:10 미디어 인사이드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15:45 섹션 TV 연예통신	15:25 SBS 뉴스	14:40 아는 형님 (재)		15:50 덕수리5형제	
17:40 열린음악회	16:50 해피선데이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5:35 SBS 인기가요	16:00 히든싱어 4(재)	16:00 응답하라 1988 (재)		16:00 내가 잠들기 전에
19:10 도전 골든벨			16:50 일요일이 좋다	18:10 마의 마법		18:10 그린랜턴:반지의 선택	18:00 백여우 전설
20: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19:55 부탁해요, 엄마	19:55 MBC 뉴스데스크	〈런닝맨/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5〉	19:10 최고의 사랑-정수커플 스페셜	19:40 코미디 빅리그		
21:00 KBS 뉴스 9	21:15 개그 콘서트	20:45 엄마	20:00 SBS 8 뉴스	19:40 JTBC 뉴스룸		20:30 리딕	20:4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21:40 역사저널 그날	22:50 다큐멘터리 3일	22:00 내 딸, 금사월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0:30 유자식상팔자 (재)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2:30 취재파일 K	23:50 영화가 좋다	23:15 시사매거진 2580	22:00 애인 있어요	21:40 타인의 취향	22:50 문제적 남자		22:00 퍼펙트 게임
23:10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	24:55 2015 특별기획	24:05 창사특집 UHD 특집드라마	23:10 창사25주년 기획 바람의 학교	23:00 김제동의 톡투유		23:00 강남 1970	
24:0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코리안 지오그래픽 (재)	퐁당퐁당 러브	24:20 불타는 청춘 (재)	24:20 아는 형님 (재)	24:20 응답하라 1988 (재)		24:40 인 더 블러드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인사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워커홀릭이다. 꼼꼼하고 철저하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기억이다. 이 행장을 부장으로 모셨던 A씨는 한 번도 퇴근 시간에 집에 간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 야근의 연속이었단다. 퇴근 시간에 자리를 비운 그는 오후 9시나 10시에 꼭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퇴근 전에 지시한 일을 점검했다. 빨간 펜을 들고 후배들이 작성한 리포트를 챙기며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루 일과를 시간이 아니라 분 단위로 쪼개 썼는지 모른다. 저녁 시간. 그는 밖에서는 손님을 모셨고, 회사에 돌아와서는 일과 후배를 챙겼다. 후배들은 힘들었다. 하지만 늦은 밤 회사에 항상 나타나는 선배를 존경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선배였다. 과거 권위적인 선배가 일을 지시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모습을 감췄던 것과는 달랐다. 언제나 회사를 거쳐 퇴근하는 스타일이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한 보람을 느끼는 후배들이 많았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상무가 됐고, 부행장이 됐다. 또 1년 전 2만명에 가까운 조직의 수장 자리에 앉았다. 조직내에선 깜짝 놀란 만한 인사였다. 이순우 전 회장의 '오른팔'로 통했던 그였기 때문이다.

이광구 행장. 그가 최근 야심찬 인사를 했다. 예정보다 빨리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를 앞두고 어수선한 조직을 다잡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예상했던 시기보다 이르게 임원인사를 냈다.

그는 인사를 앞두고 고민했다. 2년의 임기를 과오없이 끝내기 위해선 안정이 필요했다. 확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상무들로는 입지가 약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부행장 전원교체 대신 6명 중 4명을 바꿨다. 특히 한 명은 꼭 지우고 싶어했다는 후문이다. 인사가 생각대로만 되진 않았다.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정부였다는 것을 간과했다. 멀리하고 싶은 사람을 곁에 뒀다.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한 우리은행이다. 그리고 채널·지역을 감안해야 하는 조직이었다. 이 행장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누군가를 '2인자'로 둘 순 없었다. 살리는 대신 '3권 분립'을 택했다. 영업·국내·해외 그룹장 세부문으로 나눠 평등하게 권력을 나눴다. 고육지책이었다.

부행장급 인사에 골몰했던 이 행장은 나머지 상무급 가운데 믿을만한 사람만 남겼다. 그리고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인사를 택했다. 설왕설래가 많은 사람도 앉혔다. 어차피 1년 남은 임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기 어려웠다.

전 행장의 연임이 무르익을 무렵, 대주주(?)는 측근을 통해 "꼭 연임해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측근은 당황했다. 평판과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연임은 없다'는 대원칙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렇다. 이 행장도 연임은 없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360여일이다. 변화를 꾀하기엔 부족한 시간일 수 있다. 그래서 부족한 임원을 곁에 두고 있는 지 모른다.

많은 눈들이 지켜본다. 부족한 선배, 못난 선배, 평판이 안좋은 선배, 윗사람에게만 잘하는 선배가 건재하다. 이 행장의 이번 인사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부채가 없는 이 행장이다. 챙겨줄 사람도 많지 않다. 어차피 일로 사람을 평가한 이광구 행장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감성이 필요했다. 안정보단 개혁이 필요했다. 1년,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더 과감한 인사개혁도 가능했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다. 조직의 새로운 기운은 인사에서 비롯된다. 조직 인사는 언제든 단행할 수 있다. 부디 후배들이, 우리은행을 사랑하는 조직원이 바라는 인사를 기대한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社說

자제의 용기 속에 막내린 조계사 은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결국 스스로 나왔다. 지난달 14일 수배자 신분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조계사로 은신했던 한상균 위원장이 24일만에 조계사를 나와 경찰에 출두한 것이다. 그 사이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경찰과 조계종 사이에 고조됐던 긴장도 이로써 해소됐다.

한 위원장이 스스로 걸어나오기는 했지만 스스로 나온 것은 아니다.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조계종을 압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공권력을 사찰 경내로 투입하려던 순간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받아들였다. 법집행 책임을 다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한 것이다. 조계종도 종교기관으로서 극단적인 사태를 막기 위한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 여론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는 가운데 민노총도 자진출두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결단을 수용한 것은 현명했다. 당사자 모두 자제의 용기를 보여준 셈이다. 과거에도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된 일이 몇 차례 있었다. 그럴 때마다 현대사회의 '소도'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위야 어쨌든 이번에 그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현대 사회에도 성역 하나쯤은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남은 문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 여부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한 위원장의 자진출두 결심을 수용하던 태도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이 역시 자제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문제에 관해 민노총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를 보다 질서 있게 제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혹시라도 지난달 14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방식의 시위를 또다시 하겠다면 더욱 곤란하다. 주장도 마땅한 이유가 있을 때 적합한 방식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상처만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노동법에 관한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중은 신은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기자 수첩

신 원 선 〈라이프&유통부〉

최근 배우 신은경의 연예계 활동에 급제동이 걸렸다. 전 소속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터진 초호화 해외여행, 거짓 모성애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사실 연예인들이 소속사를 옮기면서 갈등을 겪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신은경과 전 소속사의 분쟁과정에서 폭로된 1억원대의 여행 경비는 다소 충격적이다. "전 남편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쉼없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처지를 토로한 신은경을 대중은 그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서민이라면 꿈도 못 꿀 초호화 여행은 대중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그동안 전 소속사로부터 생계비 정도의 출연료만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너무 상반된 내용이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신은경의 전 시어머니 A씨는 그녀가 화면에서 보여주는 모성애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신은경은 장애를 갖고있는 자식을 본인에게 맡겨놓고 8년 동안 두 번 찾아온 것이 전부다. 양육권이 신은경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일이다. 그리고 A씨는 최근 5년간 신은경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신은경은 아들은 방치하고 억대 여행을 즐긴 무정한 여자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신은경은 MBC '리얼스토리 눈'과 SBS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항변했다.

신은경은 거짓 모성에 대해 "친정 어머니가 수시로 아들을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간 적도 있다"며 2013년도에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였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말대로 아들과 신은경, 그리고 친정 어머니를 비롯한 식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신은경은 아이를 찾지 않는것에 대해 "이혼 후 시어머니가 자주 아이를 보고자 했다. 하지만 그 분과 대면하기에 내게 남겨진 상처가 너무 컸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전 소속사가 공개한 여행 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두번이나 해명 인터뷰를 했지만 깨끗히 해소된 건 없다.

어느 쪽의 입장이 진실이건 어쨌든 변함없는 사실은 87세의 늙은 전 시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신은경의 아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몸집이 커진 아이를 버거워한다는 점이다. 양육권을 가진 친엄마 신은경이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대중에게 해명하기에 앞서 행동으로 모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tree6834@

음주상태로 주차, 처벌 받을까

생활법률

주차구획선 밖 통로부분 평소 쓰임새 여부에 달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한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다. 얼마 뒤 도착한 대리기사는 그가 사는 아파트에 진입해 주차를 마친 후 돌아갔다. 집에 들어가려던 A씨는 순간 자신의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어설프게 밟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옆 차량에 피해가 갈 것이라 판단한 A씨는 똑바로 정렬하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다 오히려 옆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를 시도하려했지만 상대방은 그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 알콜농도 0.13%.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2호 제1호에 따르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외부차량이 경비원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봤다. 또다른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해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A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주차구획선 밖 통로부분의 평소 쓰임새 여부에 달려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특정한 용건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인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써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인지에 따라 음주운전 해석이 달라지게되는 셈이다.

/연미란 기자 actor@

'제17회 가천길재단 심청효행상' 대상, 김명은 양

간경화 어머니의 꿈 성지순례길 선물로

5년간 학비 아껴 600만원 모아
한 달간 어머니 모시고 다녀와

제17회 가천길재단 심청효행상 대상에 김명은(19·충남 계룡고·사진)양이 선정됐다.

장녀인 김양은 시각장애 1급인 아버지(46)와 간경화를 앓는 어머니(46)를 모시고 남동생과 살고 있다.

김양은 고2 여름방학 때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다.

5년간 학비를 아껴 모은 600만원을 들고 어머니가 꿈에 그리던 스페인 산티아고 성지순례길로 함께 떠난 것이다. 학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른 한달간의 순례길이었다.

김양은 오랜 질환으로 쉽게 피로를 느끼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 6~7시간을 내리 걸었다. 800km의 순례길을 걷는 동안 통역과 숙식 해결 등은 모두 김양의 몫이었다.

스페인에 가기 전 매일 30분씩 영어회화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했다는 김양은 "늘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하셨던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려 기뻤다"며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보낸 한달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원광대 한의예과 수시 모집에 합격한 김양은 어릴 적부터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밝게 웃었다.

"누구든 아버지의 안마를 받고 나오면 표정이 밝았어요. 저 역시도 남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김양은 상장과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김양은 "과분한 상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제17회 심청효행대상 시상식은 18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열리며 시상식 후에는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특별공연이 이어진다.

/인천=연합뉴스

서울우유 5대 상임이사에 최철수 前 영업상무 취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제5대 상임이사에 최철수(58·사진) 전 영업상무가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신임 상임이사는 경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에 서울우유협동조합 공채 7기로 입사해 지난 30여년간 경영기획실장, 마케팅본부장, 영업상무를 역임했다.

최 상임 이사는 2년간 제5대 상임이사 임기를 맡게 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인사

◆한겨레신문 △섹션서울부 섹션서울부장(겸직) 윤승일 △섹션서울부 섹션서울팀장 김도형 △섹션서울부 지역네트워크팀장 이현숙
◆전남일보 ▲기획특집부장 이기수 ▲지역사회부장 박간재 ▲문화체육부장 김기봉
◆아시아경제신문 △편집국 금융부장 노종섭 △편집국 사회부장 정완주 △편집국 산업부장 이정일 △편집국 유통부장 이초희 △편집국 디지털뉴스룸 부국장 이상국 △편집국 종합편집부장 임훈구 △뉴미디어본부 기획부장 겸 개발부장 임웅
◆무림그룹 (상무 승진) △박시한 연구개발부문장 (이사 승진) △임영기 국내영업부문장
◆이사대우 승진 △김경동 울산공장 생산담당 △김동환 진주공장 생산담당

부고

▲박순희씨 별세, 유영수·정아·미아씨 모친상, 장재영·변준호(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씨 장모상 = 9일,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11일. ☎ 02-927-440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오리온 vs 모비스 '1위 빅뱅'

2015-2016 프로농구

오늘 '단독' 1위 놓고 외나무 승부
고양, 헤인즈 부상·잭슨 활약 관건
울산, 클라크-빅터 '외인 듀오' 기대

프로농구 팬들의 시선이 울산으로 쏠리고 있다. 공동 1위를 달리는 울산 모비스와 고양 오리온이 11일 울산에서 맞대결하기 때문이다.

2015-2016시즌 프로농구는 개막 이후 오리온이 엄청난 기세로 단독 1위를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애런 헤인즈의 부상 후유증으로 주춤하고 있다. 그 사이 모비스가 공동 선두로 치고 올라왔다.

헤인즈는 지난달 15일 전주 KCC와의 경기 도중 무릎을 다쳤다. 개막 후 21경기에서 18승을 쓸어 담았던 오리온은 이후 7경기에서 2승5패를 기록하며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 9일 KCC 전에서 5연패 위기를 맞았던 오리온은 극적인 1점 차 승리로 연패 행진을 끊었다. 그러나 11일 모비스와 경기부터 복귀할 예정이던 헤인즈가 부상이 완쾌되지 않아 출전이 불투명하다.

특히 9일 시작된 정규리그 4라운드부터는 2쿼터와 3쿼터에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뛸 수 있게 됐다. 헤인즈가 빠진 오리온의 전력 누수가 더 커진 상황이다. 10개 구단 가운데 리바운드가 최하위일 정도다.

반면 모비스는 최근 11경기에서 9승2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어시스트 부문 1, 2위를 달리는 함지훈과 양동근이 국내 선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아이라 클라크와 커스버트 빅터로 이어지는 외국인 선수 구성도 안정적이다.

앞서 세 차례 열린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오리온이 2승1패로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세 번 가운데 두 팀이 베스트 전력으로 맞붙은 것은 2라운드 경기 한 번뿐이었다.

1라운드 때는 오리온의 이승현과 모비스의 양동근이 국가대표 차출로 뛰지 못했다. 3라운드에서는 오리온의 헤인즈가 부상으로 결장했다.

이번 4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국내 최고 가드인 양동근과 이번 시즌 유일한 포인트 가드 외국인 선수인 조 잭슨이 자존심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골밑에서는 모비스가 클라크-빅터 '외국인 빅맨 듀오'를 가동한다. 오리온은 이승현-장재석의 '토종 빅맨 콤비'로 맞불을 놓는다.

추일승 오리온 감독은 "일단 연패를 끊어 국내 선수들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빠진 상태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유재학 모비스 감독은 "헤인즈가 없다고 해도 KCC를 잡은 것을 보면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경계심을 내보이며 "키 190㎝ 이상의 장신 포워드들이 많은 팀이라 매치업을 이루기가 쉽지 않지만 지역방어를 적절히 구사하며 수비하겠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울산 모비스의 양동근(위)과 고양 오리온의 조 잭슨.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뜸/07:36 | 해짐/17:14

12월 11일 금요일 (음력 11월 1일)

전국에 구름… 충청도엔 오전까지 빗방울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강원도 영동은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남북도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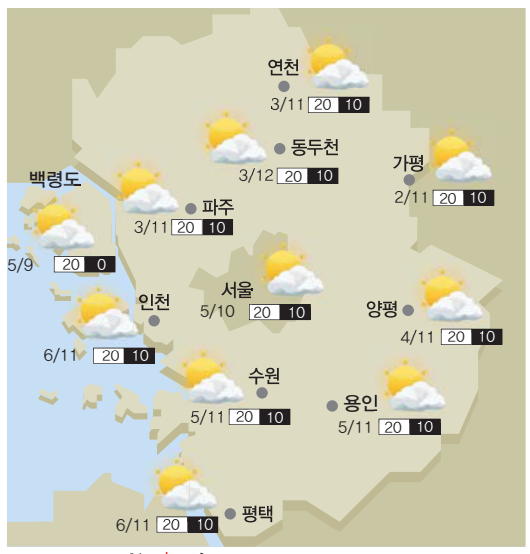
	기온(℃)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5/10	20	10
강릉	7/8	80	20
세종	6/10	30	20
대전	5/10	30	20
청주	6/10	30	20
광주	9/11	60	20
전주	7/11	30	20
목포	10/10	30	20
제주	12/13	60	60
대구	9/11	70	20
창원	10/12	70	20
포항	11/12	80	20
부산	11/13	70	20
울릉	7/8	60	20

수도권 날씨 10~5 ℃

체감온도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08:23/20:23	01:43/14:23
인천	04:31/16:55	10:44/23:21
울산	07:27/19:54	00:54/13:32
군산	02:52/15:22	09:32/22:12
목포	01:34/14:19	09:32/19:3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K-리그의 힘… 韓 축구, AFC 랭킹 1위

프로클럽·A매치 성적 합산
사우디·일본 2~3위 올라

한국 축구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선정한 'AFC 회원국 랭킹' 1위에 올랐다. /AFC 홈페이지

한국 축구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선정한 'AFC 회원국 랭킹' 1위에 올랐다.

AFC는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AFC 회원국 랭킹'을 공개했다. 한국은 클럽 포인트(61.911점)와 국가대표 포인트(27.926점)를 합쳐 총점 89.838점으로 1위에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총점 89.217점)와 이란(78.153점)이 2~3위에 랭크됐다. 일본은 총점 74.959점으로 아랍에미리트(총점 77.314점)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AFC 회원국 랭킹'은 A매치 결과로만 따지는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과 달리 회원국의 4년간 프로클럽의 성적(70%)과 최근 국가대표팀의 성적(30%)을 합산하는 게 특징이다.

A매치보다 사실상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성적이 더 랭킹에 영향을 준다. AFC는 회원국의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산정에서도 'AFC 회원국 랭킹'을 평가의 척도로 삼는다.

AFC는 "한국이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울산 현대가 2012년 우승하고 FC 서울이 2013년 준우승하면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며 "K리그 클럽들이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게 1위를 차지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병호 기자

맨유, 네이마르에 또 러브콜?

내년 이적시장 대비 2500억원 마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FC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23·사진) 영입에 나설 전망이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8일(현지시간) 맨유가 내년 1월 이적 시장에서 네이마르 영입을 위해 1억4390만 파운드(약 2558억원)를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맨유는 2015-2016 시즌 스트라이커 부재를 겪었다. 지난 여름 시장에서도 대형 스트라이커 영입을 시도했다.

당시에도 네이마르 영입을 노렸다. 그러나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며 이적설을 일축했다.

지난 여름 거액을 들여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멤피스 데파이 등을 영입한 맨유는 다시 네이마르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서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어 이적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텔레그래프는 내다봤다.

맨유는 지난 8일 볼프스부르크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6차전 원정 경기에서 2-3으로 역전패 당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네이마르는 이번 시즌 14골을 몰아넣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며 팀의 1위를 이끌고 있다. /장병호 기자

내년 프로야구 4월 1일 '플레이볼'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 편성

2016년 한국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내년 4월 1일 개막한다.

KBO는 2016년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금요일인 4월 1일 개막해 9월 18일 종료된다. KBO 정규시즌을 금요일에 개막하는 것은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10개 팀이 팀당 144경기를 치른다. 팀 간 16차전씩 총 720경기가 치러진다.

개막경기는 편성원칙에 따라 2014년 최종순위를 기준으로 1-6위, 2-7위, 3-8위, 4-9위, 5-10위 팀 간 경기로 편성한다. 대구(두산-삼성), 고척스카이돔(롯데-넥센), 마산(KIA-NC), 잠실(한화-LG), 문학(KT-SK) 구장에서 3연전으로 개최된다.

내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와 고척스카이돔은 개막전으로 KBO리그 첫 공식 경기를 치른다.

2016년 일정은 금요일에 개막함에 따라 팀 간 16차전(홈 8·원정 8경기)씩 720경기를 모두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올해까지는 토요일에 정규시즌을 개막해 2연전으로 시작함에 따라 715경기만 우선 편성한 뒤 나머지 5경기를 우천 순연된 경기 등과 함께 추후 재편성했다.

KBO는 "구단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주말 및 공휴일 경기 수를 될 수 있는 대로 균등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삼성, SK, KIA, LG, KT의 홈 구장에서 열린다. /장병호 기자

'성적 부진' 스완지, 사령탑 바꾼다

멍크 감독 경질… 계약 종료 밝혀

기성용이 소속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게리 멍크 감독을 경질했다.

스완지시티는 10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멍크 감독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며 "최근 팀을 둘러싼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구단은 물론 서포터스를 위해서 경질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휴 젱킨스 스완지시티 구단주는 "무거운 심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9월 첫 번째 주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팀의 경기력 저하와 성적을 돌이켜볼 때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완지시티는 지난 8월 31일 정규리그 4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1로 꺾은 이후 치른 11경기에서 1승3무7패로 부진에 빠졌다.

팀 성적도 15라운드까지 치른 상황에서 3승5무7패(승점 14)로 15위에 그쳤다. 강등권인 18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승점 13)와 격차가 승점 1 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다. 순식간에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다.

멍크 감독은 2014년 2월 스완지시티의 감독 대행을 맡았으며 그해 5월 정식 감독으로 승격했다.

지난 시즌 개막에 앞서 선덜랜드 임대를 마치고 스완지시티에 복귀한 기성용은 멍크 감독의 지휘 아래 중원의 핵심 멤버로 성장했다. 이번 사령탑 경질은 기성용에게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장병호 기자

"의료시장의 정보 불균형 해소하고파"

Oinline to Offline
O2O 시대 프론티어

병원 마케팅 플랫폼 '굿닥'
증상·테마별 정보 제공해
맞춤형 검색 편의성 높여

"국내 의료 시장의 정보 불균형 상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싶어요."

좋은 식당이나 호텔을 찾아갈 땐 한 눈에 비교하고 따져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지만, 정작 내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땐 어디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는 주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기 마련이지만, 좀 더 자신의 증상별로 적절한 병원을 찾아가고, 비용도 합리적이었으면 하는 점도 있다.

박경득 굿닥 대표는 국내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기획했다. 바로 병원 마케팅 플랫폼 '굿닥'이다.

굿닥은 병원과 약국을 찾아주는 O2O 서비스다. 애플리케이션 내에 버튼 하나만 터치하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병원과 약국들의 위치와 진료정보를 소개해준다.

최근 강남역에 설치된 '굿닥 약국'. 오프라인 약국도 마련했다. 지하철 미니 약국으로 꾸며진 물품 보관함 안에는 파스, 반창고와 같은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롯해 생리대, 휴지 등이 구비돼 있다.

또 다른 병원 찾기 앱과의 차별화를 위해 여의사 산부인과, 화상 전문 병원 등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증상별, 테마별 병원정보를 모아서 제공한다. 맞춤형 병원 검색으로 환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는 것.

아울러 앱 안에서 의사와 1: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사용자가 병원에 가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간단한 의료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엔 '굿닥캐스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굿닥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유쾌한 형태의 의료 콘텐츠도 제작해 많은 사용자에게 제공 중이다. 박 대표는 굿닥에 대해 "병원에 가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볼 수 있는 의료 정보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굿닥 서비스는 2012년에 처음 시작됐다. 이제 막 4년이 넘어간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현재 40여 명의 직원을 꾸리고 있고, 월 매출 3억~4억을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수익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욕심을 내 인건비를 늘려왔던 것이 원인이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떠나갔지만, 서비스의 장래성을 믿고 홀로 남아 낮에는 영업을, 밤에는 광고와 마케팅을 구상했다.

박 대표는 "옐로모바일로 합류될 당시 매출이 월 500만원이었다. 이후 처음 3000만원 매출을 달성했을 때 인원 충당을 했고, 늘어나는 매출만큼 지속적으로 인력을 뽑았다. 현재는 40명 정도의 직원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굿닥이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박 대표는 "의료정보에는 병원 검색 정보, 의료 콘텐츠, 병원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속해 있다"며 "이에 굿닥은 병원에 가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충분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남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박경득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최근 굿닥의 이슈는 무엇인가.

"굿닥은 전반적인 서비스 개편을 준비 중이다. 병원 찾기와 의료 콘텐츠 제공 기능이 지금까지의 메인 서비스였다면, 앞으로는 맞춤형 병원 검색과 예약 서비스를 필두로 하는 의료정보 포털 형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에 조직 내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작업과 인력 충원을 진행 중이다.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사용자들이 병원에 갈 때 보다 유용한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고자 한다."

- 병원 마케팅 관련 시장 규모는 어떤가? 수익 모델 형태는.

"기본적으로 굿닥의 수익은 병원 이벤트 정보 제공을 통한 광고·마케팅에서 발생하고 있다. 병원 마케팅 시장은 정말 크고 매력적이다. 숙박, 미용 등 다른 O2O 시장보다 병원에서 집행하는 마케팅 비용 단위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장을 주도하는 큰 플레이어가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척 많았고, 이로 인해 창업 초기보다 매출도 12배 이상 늘 정도로 회사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 내수시장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포화상태가 올 수도 있을텐데.

"병원, 약국 찾기 영역은 전국 단위다. 야간진료, 카테고리별 병원 찾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지만 이벤트·시술 검색은 서울 강남권에만 있다. 플랫폼만 제공하고, 병원 측에서 이벤트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올해 목표가 지역 확장이었다. 하지만 지방 병원은 아직 모바일 광고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 어려웠다. 내년에는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서비스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포화상태라고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내 시장도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

-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1일 사용자수(DAU)는 2만5000명 정도다. 콘텐츠를 제작해 캐시슬라이드, 대학내일 등 외부매체와도 계약해서 같이 노출을 시키다보니 트래픽이 모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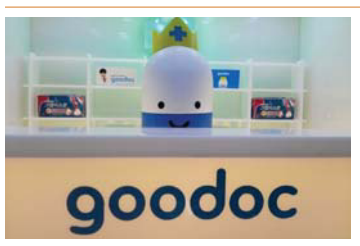
박경득 굿닥 대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3361호 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라이프]
병원 마케팅
'굿닥'
19

연재만화

14

웃음·눈물 담은 실화 vs 비운의 마지막 虎

〈히말라야〉 〈대호〉

연말 극장가 사로잡을 눈물과 감동

'히말라야' '대호' 언론시사회로 첫 공개
흥행 감독·배우·제작사 재회한 기대작
눈 덮인 산 배경으로 인간의 이야기 담아

연말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두 편의 대작들이 최근 언론시사회를 통해 첫 공개됐다. 오는 16일 개봉하는 '히말라야'(감독 이석훈)와 '대호'(감독 박훈정)다. 장르도 소재도 정서도 전혀 다르지만 그 속에는 묘하게 닮은꼴이 있다. 눈으로 뒤덮인 산이 배경인 두 영화는 눈물과 감동의 이야기로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히말라야, 웃음·눈물 담은 실화의 힘

히말라야는 올해 '국제시장'과 '베테랑'으로 두 편의 1000만 영화를 탄생시킨 CJ엔터테인먼트가 올해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국제시장'의 제작사 JK필름이 만들고, '댄싱퀸'의 이석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국제시장' '베테랑'의 주역인 황정민이 주연을 맡아 제작 단계부터 일찌감치 기대작으로 꼽혔다.

영화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2005년 히말라야 등반 도중 생을 마감한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꾸린 휴먼원정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황정민이 엄홍길 대장을, 정우가 박무택 대원을 연기했다. 김인권·조성하·라미란·김원해·이해영·전배수 등 연기파 배우들이 가세해 탄탄한 조연진을 자랑한다.

JK필름은 그동안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작품으로 관객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해운대' '하모니' '댄싱퀸' 그리고 '국제시장' 등이 그랬다. '히말라야'도 JK필름 특유의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엄홍길과 박무택의 첫 만남, 그리고 둘의 히말라야 등반 과정 등 극 초반부는 소소한 웃음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영화는 박무택의 죽음을 기점으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련함으로 관객의 눈가를 촉촉하게 적시게 한다.

극중 엄홍길 대장은 "산은 정복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말처럼 영화는 산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사람을 이야기한다. JK필름의 기존 작품과 일맥상통하는 주제다. 황정민은 히말라야를 촬영하면서 유독 외로웠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자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네팔과 프랑스 몽블랑 로케이션 촬영으로 담은 설산의 풍경, 그리고 익숙한 신파를 평범하지 않게 그려낸 배우들의 열연 등도 관전 포인트다.

◆ 대호, 비운의 시대 담은 비장함

대호는 '신세계'의 박훈정 감독과 배우 최민식, 제작사 사나이픽처스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2012년 개봉해 468만 관객을 동원한 '신세계'는 많은 유행어와 함께 현재도 영화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다. 신세계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황정민과 최민식이 서로 다른 두 작품으로 흥행 대결을 펼치게 돼 영화계의 관심이 크다.

영화의 배경은 1925년 일제강점기다. 조선 최고의 명포수 천만덕(최민식)과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대호가 주인공이다. 사냥을 포기한 천만덕과 그런 천만덕이 못마땅한 아들 석(성유빈)의 이야기, 그리고 조선의 호랑이를 제거하려는 일본군의 이야기가 극의 양축을 담당한다. 출연진도 화려하다. 최민식 외에도 정만식·김상호·정석원·성유빈 등이 출연한다. 일본의 명배우 오스기 렌은 일본군 고관 마에노조 역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박훈정 감독의 작품은 서늘하면서도 비장하다. 대본을 쓴 '악마를 보았다'와 '부당거래', 그리고 감독 작품인 '혈투'와 '신세계'를 관통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냉혹한 시선이었다. 대호에서도 이런 정서는 여전하다. 눈에 쌓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영화는 시종일관 묵직한 감정을 전한다. 민족정서와 부성애를 넘나들던 영화의 종착점은 바로 사냥꾼과 호랑이의 교감이다. 여기에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비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두 주인공의 비장함이 있다.

박훈정 감독은 "'호랑이 나라'라고 불릴 정도였던 조선에서 호랑이는 어떻게 사라져가게 됐는지, 그 순간을 들여다 봤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존재들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감독의 변을 밝혔다. 극중 호랑이는 100% CG로 구현됐다. 스크린에서 완벽하게 부활한 조선 호랑이 또한 '대호'의 빠트릴 수 없는 볼거리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